

20일 Market Index			
↑ 코스피	5781.20	↑ 코스닥	1161.52
	(+17.98)		(+18.04)
↑ 금리 (연이자율)	3.410	↑ 환율 (원/달러)	1504.70
	(+0.081)		(+3.70)

편의점 매출  
500% 급증  
‘BTS노믹스’  
02



## ‘추경’ 자칫 물가상승 역효과 우려

유가 폭등에 환율 1500원대 외국인, 이달 증시 16조 매도  
韓 소비자 물가 상승 부추겨

원·달러 환율이 19일과 20일 연속으로 1500원 위에서 주간(晝間)거래를 마쳤다. 좀 진정되는가 싶던 국제유가는 배럴당 세 자릿수에 안착하는 모습이다.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은 이달에만 16조 원어치 넘게 팔아 치웠다.

특히 환율의 경우 외환당국의 개입 엄포에도 불구하고, 유가 폭등과 외인 매도세의 영향으로 거침없는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을 부채질할 전망이다. 게다가 정부가 준비 중인 추가경정예산이 도리어 물가 급등의 빌미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지난 2월20일 미달러화 대비 원화는 1448.0원 선이었고 중동 산두바이유 선물은 배럴당 68.50 달러에서 거래됐다. 원유 1배럴 들어오는 데 우리 돈 10만 원을 안 넘었다.

3월20일 기준으로는 환율이 1500.6원, 두바이유가 134.07달러에 달했다. 기름값을 원화로 환산할 시 배럴당 20만1185원이다. 불과 한 달 만에 배 이상을 지불해야 하는 처지다. 같은 날 북해산브렌트유와 미서부텍사스산 원유 선물은 각각 106.41달러, 98.23달러로 마감했다.

이와 연동돼 각종 원자재·원재료 등의 수입물가 역시 곧 필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수입 농축수산물 가격도 급상승이 불가피하다. 주요 외신은 최근 유가 급등으로 타격을 받은 아시아 국가들을 집중 조명하기도 했다. 동남아 등 아시아지역 생산품 가격 변동의 국내 전이는 시간 문제다.

또 2월 말 미국·이스라엘이 이란 공격을 개시한 이후 국내 자본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매도세가 두드러졌다. 주식을 대거 매도한 뒤 달러 및 자국화폐로 현금화하는 비중이 늘면서 원화 값 하락세가 심화했다.

이와 같이 고유가·외인매도·고환율 지표가 서로 얽혀 국내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2면에 계속>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metro



합동분향소 찾은 안전공업 임직원들

22일 대전시청에 마련된 대덕구 안전공업 화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은 안전공업 임직원들이 희생자들을 조문하고 있다. /뉴스

## 李, 한은총재 후보자에 신현송 지명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로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경제고문 겸 통화경제국장을 지명했다. 현 이창용 총재의 임기는 내달 20일 만료된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을 갖고 “이 대통령은 한국은행 총재에 신현송 국장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신현송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



문화를 거친 뒤 대통령 임명을 통해 공식 취임하게 된다.

이 수석은 신후보자에 대해 “미국 프린스턴 대학 교수뿐만 아니라 국제통화기금(IMF), 뉴욕연방준비은행 등에서 활동해 왔다”며 “학문 깊이와 실무 통

찰력을 모두 갖춘 국제금융·거시경제 분야 세계적인 권위자”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중동사태로 인해 국제경제 불확실성이 더욱 커진 상황에서 물가안정과 국민경제성장이라는 통화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적임자”라고 기대했다.

/서예진 기자 syj@



metro

## 개인, 이달 22조 순매수... 수익률 -9% 불과

서학개미, 국장 복귀 움직임  
매수 10개 종목 중 플러스 2개

중동 전쟁 속에서도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이달에만 약 22조원어치를 매수했지만, 투자 성적은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개미들의 국내 시장 복귀 움직임은 본격화하는 추세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직후 거래일인 지난 3일부터 20일까지 국내 증시에서 개인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의 평균 수익률은 -9.41%였다. 개인의 수익률은 같은 기간 외국인(-0.25%)이 담은 상위 10개 종목의 평균 수익률보다 부진한 성적이다. 외국인은 코스피 수익률(-7.41%)보다 앞섰다. 개인이 산 10개 종목 중

플러스(+수익률)를 기록한 종목은 2개에 불과했다.

개인이 가장 많이 담은 종목은 삼성전자로 8조3610억원 순매수했는데, 이달 들어 주가는 7.90% 내렸다. 두번째로 많이 산 SK하이닉스도 같은 기간 5.09% 하락했다. SK하이닉스 순매수액은 2조8060억원에 달했다. 순매수 3, 4위인 현대차와 기아도 각각 23.29%, 18.00% 하락했다.

외국인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 중 4개 종목(두산에너지, 에이피알,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삼성생명)이 지난달 말 대비 플러스(+수익률)를 기록해, 개인(2개)보다 양의 수익률을 나타낸 종목이 많았다.

부진한 성적에도 국내 증시를 향한 발걸음은 빨라지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은 지난 3월 2일부터 20일까지 유가증권시장에

서 21조8293억원어치를 사들였다. 5년여 전인 2021년 1월의 역대 최대 순매수를 뛰어넘을 기세다. 올해 전체 순매수는 34조 7279억원에 달한다. 상장지수펀드(ETF) 등을 합치면 순매수액은 최대 50조원에 이른다.

투자자 예탁금은 지난 19일 현재 115조원으로 50조원대 초반이었던 1년 전에 비해 두 배 이상으로 불어났다.

서학개미들의 국내 시장 복귀 움직임도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순매수 규모는 6900만 달러(약 1033억원)에 그쳤다. 지난 1, 2월 만해도 각각 50억달러, 40억달러에 달했다.

/허정윤 기자 zekova@



metro

社告



## 메트로경제 ‘2026 100세 플러스 포럼’ 부자들의 재테크 트렌드 엿보기

메트로신문이 오는 3월 24일(화) ‘2026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1을 개최합니다.

저성장 지속과 내수(소비+투자) 부진으로 국내의 경제는 불확실성의 연속입니다. 불확실성은 경제에 가장 치명적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선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100세시대 현실화로 확실한 자산 설계가 절실합니다.

메트로신문은 “초고령사회와 생산적 금융-주식·부동산 등 자산의 재설계”를 주제로 포럼을 준비했습니다. 국내외 경제와 주식·부동산 시장을 전망하고, ‘강남 부자’들의 재테크 트렌드를 엿볼 예정입니다.

- ◆ 행사명 : 2026 메트로 100세 플러스 포럼(시즌1)
- ◆ 주 제 : 초고령사회와 생산적 금융  
- 주식·부동산 등 자산의 재설계
- ◆ 일 시 : 3월 24일(화) 오후 2시~5시00분  
(VIP 티타임 오후 1시40분 ~2시)
- ◆ 장 소 :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컨벤션홀)
- ◆ 문 의 : 100세포럼 사무국 (02)721-9818,  
e-메일 forum@metroseoul.co.kr  
(사전등록 참가비 무료, 현장등록 5만원)
- ◆ 주 최 :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

metro

## M-커버스토리

## 고등교육 80% 사립대 담당 재정은 국공립 투입 ‘온도차’

### 국·공립대 형평성

사립대 학생 1인당 교육비 국공립의 67% 수준 불과

국내 고등교육의 약 80%를 사립대학이 담당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고등교육 재정은 여전히 민간 의존 구조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3면>

역할과 재정 투입 사이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사립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국공립대학의 약 67% 수준에 그쳤다. 고등교육의 상당 부분을 맡고 있는 사립대에 대한 형평성 있는 재정 지원과 재정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의 ‘2025년 대학의 교육비’ 최근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대학 학생 1인당 연간 교

육비는 국공립대학이 2592만5000원, 사립대학은 1738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국공립대학이 사립대학보다 약 853만9000원 더 많은 교육비를 투입하는 셈이다.

### ◆ 등록금 대비 교육비 국공립대 2.7배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간 교육비 격차는 최근 몇 년 사이 빠르게 벌어지고 있다. 고등교육의 상당 부분을 사립대학이 담당하고 있지만 실제 교육 투자 규모는 국공립대학이 훨씬 큰 구조다.

2020년 두 대학 유형 간 학생 1인당 교육비 차이는 362만원 수준이었지만 2024년에는 853만9000원으로 약 2.4배 확대됐다. 교육비 증가 속도 역시 국공립대학이 훨씬 빨랐다.

<3면에 계속>

/이현진 기자 lhj@



metro

## 메트로 한줄뉴스



- ▲원희룡 “양평고속도로 사업 재개 환영...특혜 의혹 진실 밝혀질 것” /사진 뉴스
- ▲방첩사 해체 후 국방방첩본부 신설...수장에 軍 소장 가능

- ▲김 총리 이번주 ‘아시아 다보스’ 참석차 방중...정재계 핵심인사 교류
- ▲정청래, ‘자녀 돈봉투 수수 의혹’ 장세일 영광군 수 윤리감찰 지시

- ▲輿, 서울시장 후보 3인으로 추린다...본경선 티켓 잡기 치열
- ▲국힘 공관위 오늘 오세훈 면접...‘혁신 선대위’ 신경전 계속

# 1시간 공연에 편의점 매출 500% ↑... 'BTS노믹스' 재가동

GS25·이마트24·세븐일레븐·CU 주먹밥·생수·핫팩 등 매출 급등 “장시간 대기하는 관객들에게 ‘현장 편의 거점’ 피로도 낮춰”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방탄소년단(BTS) 공연으로 인근 주요 점포들의 매출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공연 특수 효과가 커지면서 4년 만에 완전체로 돌아온 'BTS노믹스'가 재가동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22일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가 광화문 인근 점포 5개 매장을 분석한 결과, 직전 동요일(3/14) 대비 매출이 233.1% 신장했으며, 객수 역시 18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연장 이동에 가장 밀접한 점포의 경우 매출이 최대 378.4%까지 상승하며 뚜렷한 특수를 보였다.

이마트24 역시 광화문·종로 일대 36개 점포의 전일 실적을 집계한 결과, 매출은 전주 대비 39%, 전월 동기 대비 33%, 전년 동기 대비 39% 신장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전주 대비 매출이 가장 크게 늘어난 점포는 301% 증가했다.



2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ARIRANG)' 공연이 끝난 뒤 한 해외팬이 인근 편의점에서 앨범을 구매하고 있다. /뉴스시스

전지(3530.8%) 등 실용 상품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마트24 역시 광화문·종로 일대 36개 점포의 전일 실적을 집계한 결과, 매출은 전주 대비 39%, 전월 동기 대비 33%, 전년 동기 대비 39% 신장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전주 대비 매출이 가장 크게 늘어난 점포는 301% 증가했다.

상품별로 건전지 400%, 물티슈 260%, 맥주 180%, 라면(봉지/컵

160%, 안주류 130%, 휴대폰 충전기·케이블 120%, 핫팩 70%, 생수 62%, 김밥 50%, 삼각김밥 45% 등 전반적으로 고른 상승세를 기록했다.

세븐일레븐의 광화문, 명동 상권 40개 점포의 매출도 전주 같은 요일 대비 100.7% 증가했다. 전월 같은 요일과 비교하면 117%, 전년 대비 46.8% 늘었다. 20일과 21일 이틀 기준으로는 전주 대비 56.8%, 전월 대비 72.8%, 전년 대비 34.9% 늘었다. 즉석식품이 2534.3%

로 가장 크게 뛰었다. 이어 배터리·건전지 836.9%, 핫팩 319.2%, 빵 226.6%, 김밥 등 간편식 212.0%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CU의 광화문 인근 10개 점포의 매출은 전주 대비 270.9% 상승했으며 특히, 공연장과 가장 인접한 대로변 점포 3곳의 매출은 무려 547.8%나 급증했다. 생수 831.4%, 아이스드링크 813.4%, 가공유 508.4%, 커피 460.8%, 차음료 436.6%, 스포츠·이온음료 396.9%, 탄산음료 285.9%로 음료 상품들의 매출이 일제히 급상승했다.

좋은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이른 새벽부터 대기하는 공연 관객들에게 편의점들은 '현장 거점' 역할을 수행했다는 평가다.

GS25 관계자는 “단순한 구매 공간을 넘어, 장시간 대기하는 관객들에게 식사, 간식, 방한용품, 휴대기기 관련 상품 등을 한 번에 제공하는 ‘현장 편의 거점’ 역할을 수행했다”며 “이를 통해 공연 관람객들의 대기 피로도를 낮추고 전반적인 관람 경험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의 매출이 크게 늘어나며 매출 상승을 견인했다. GS25의 경우, 바나나맛우유, 비요프 등 K

-푸드를 대표하는 상품들도 외국인 관광객을 중심으로 판매가 늘며 매출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BTS 진이 모델로 활동 중인 아이긴(IGIN) 하이볼은 전주 대비 1742.3% 늘었다.

BTS 특수를 시작으로 유통 업계 매출 상승이 일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제기된다.

BGF리테일 관계자는 “이번 공연은 단순한 이벤트를 넘어 도심 전반의 소비를 견인하며 국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 긍정적인 경제적 파급 효과를 보여준 것 같다”며 “외국인 고객들에게 K-편의점과 소비 문화를 알리는 홍보의 장으로서 올해 유통 업계의 분위기를 바꿀 터닝포인트가 됐다”고 평가했다.

세븐일레븐 관계자는 “이번 공연을 계기로 방한 외국인 수요와 소비가 크게 증가하며 광화문, 명동 일대 점포 매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세븐일레븐은 이러한 흐름이 일시적인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K-관광' 트렌드로 지속될 수 있도록 외국인 고객을 겨냥한 차별화 상품과 맞춤형 서비스 강화에 더욱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metro

## 이재용, 中서 AI·전장 공급망 확장 총력전

중국발전고위급포럼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도 참석  
시진핑 등 中 인사 면담 가능성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사진)과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이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고위급 경제 포럼에 나란히 참석해, 인공지능(AI)과 전장, 공급망 협력 확대에 나선다. 미·중 갈등 속에서도 중국 시장과의 연결고리를 유지하려는 반도체 업계의 전략적 행보로 풀이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이 회장과 곽 사장은 이날부터 이틀간 베이징 다오위타이 국민관에서 열리는 중국발전고위급포럼(CDF)에 참석한다. CDF는 중국 국무원이 주관하는 대표적인 대외 경제 행사로, 글로벌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모여 경제 정책과 투자 협력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 회장은 이번 포럼을 계기로 AI와 전장, 공급망 협력에 나설 전망이다



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고위급 인사와의 면담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포럼 일정 이후에는 베이징에 본사를 둔 샤오미, 바이두 등 주요 빅테크 기업 총수들과의 별도 회동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업계에서는 AI 반도체 수요 확대와 전장 사업 확장 흐름 속에서 실질적인 협력 논의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 낸드플래시 공장을 운영하고 있어 현지 생산과 공급망 전략이 사업과 직결된다. AI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중국 내 생산 기반과 협력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SK하이닉스 역시 중국 생산 거점 비중이 큰 편이다. 장쑤성 우시 D램 공장과 라오닝성 다롄 낸드플래시 공장을 보유하고 있어 현지 사업환경이 경영에 미

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곽 사장은 CDF 참석을 통해 중국과의 협력 채널을 이어오고 있다.

한편, 올해 포럼 주제는 ‘고품질 발전과 새로운 기회 창출’로 AI와 첨단 제조, 디지털 경제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팀 쿡 애플 CEO 등 글로벌 주요 기업 경영진도 대거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은 지난해 CDF 참석 당시 샤오미 전기차 공장과 BYD 본사를 방문하며 전장 사업 협력 확대에 나선 바 있다. 이번 방중에서도 유사한 행보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중국과의 협력 채널을 유지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이번 일정을 통해 리스크 관리와 사업 기회를 동시에 점검하는 성격이 강하다”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metro

## 최윤범 회장, 사내이사 재선임 표결 주목

고려아연, 내일 정기주총  
연임 결과 따라 경영진 유지 여부 갈라  
국내·외 의결권 자문기관 입장 엇갈려

고려아연 경영권분쟁의 운명을 가를 정기 주주총회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주총은 44년 연속 영업 흑자를 기록한 최윤범 회장(사진)의 ‘트로이카 드라이브(신재생에너지·수소, 2차전지 소재, 자원순환)’ 성과와 MBK파트너스의 사모펀드(PEF)식 경영에 대한 주주들의 평가를 확인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고려아연이 국가 기간산업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고려아연측과 영풍·MBK파트너스측의 소모전을 정리하고 미국 제련소 프로젝트 등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지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오는 24일 오전 9시 서울 코리안호텔에서 정기주총을 개최한다. 이번 주총의 최대 쟁점은 이사 선임 안건이다. 최윤범 회장의 연임을 포함해 이사 선임 결과에 따라서 현 경영진 유지 여부가 판가름날 수 있기 때문이다. 고려아연의 이사회는 직무가 정지된 4명을 제외한 15명의 이사진으로 구성됐다. 최 회장 측 11명, 영풍·MBK 4명의 이사가 포진됐다. 이중 6명(최 회장 5명, 영풍·MBK 1명)의 임기가 만료된다.

최 회장 측에서는 최윤범 사내이사·황남덕 사외이사·윌터 필드 맥켈런 기타비상무이사·김보영 감사위원회 위원·이민호 분리선출 감사위원회 위원이 후보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임기 만료 이사 6인에 대해 5명은 이번 주총에서 선임하고 나머지 1명은 개정 상법에 따



오는 9월까지 감사위원 분리선임 절차에 따라 총원한다는 것이다. 반면 영풍·MBK 연합 측은 이사 6인을 모두 선임할 것으로 제안하며 5명의 이사 후보를 추천하며 맞서고 있다.

이번 이사 선임 안건과 관련해 국내외 의결권 자문기관의 입장은 엇갈리고 있다. 서스틴베스트는 중장기적 기업 가치 보호를 위해 최 회장 측 5인 선임 안건에 찬성을, 영풍·MBK 측 추천 후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놨다.

고려아연은 지난해 연말 총 사업비 규모 11조원에 달하는 미국 크루서블 제련소 건설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한국ESG평가원도 찬성을 권고했다. 평가원은 고려아연이 지난해 창사 이래 최대 경영 실적(매출 16조6000억원)을 기록했으며 지난해 결산 배당금도 역대 최고 수준인 주당 2만원으로 결정해 주주환원 제고와 기업 가치를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로 꼽히는 ISS는 최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ISS는 보고서에서 최 회장 개인의 경영권 사수를 위해 회사 자금과 지분 구조를 ‘사실상 방패’로 사용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연금도 최 회장의 재선임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막판 표심은 여전히 안개속이다. 결국 소액주주들의 선택을 얻어야 승리가 가능하다고 한다.

/양성운 기자 ysw@



metro

## 박 “추경, 물가 미치는 영향 제한적”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 1면 ‘추경, 자칫 물가상승...’서 계속

만약 물가 잡기 목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면 경기 위축의 가속화를 야기할 수 있다. 또 중동 사태 직전까지 꿈꿔왔던 경기 회복세에 찬물 끼얹는 격이다.

재정경제부는 이상용 한국은행 총재 역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응책 중 통화정책은 현재로서는 우선순위에 밀려난 모습이다.

추경은 재경부가 우선 유관부처·기관과 규모 등을 짜야 한다.

문제는 역효과·부작용의 가능성이 있다. 사태가 장기화할 시 중도에 돈을 푸는 추경이 외려 물가를 부추기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일단 추경 재원이 민생 안정에만 초점을 두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취약계층 유튜브 경감과 양극화 해소, 소상공인 지원, 중동사태 피해기업 지원 등에 집중 배분한다는 방침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2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이번 추경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추경을 통한 지출 확대는 통상적으로 총수요 증가를 유발해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도 “현재 성장세가 잠재 GDP(국내총생산)를 하회하고, 반도체 등 IT(정보통신) 부문과 비IT 부문의 불균형적인 성장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물가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답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 평균 등록금 695만원... 장학금 57%, 학생 부담은 '절반'

## 등록금 논쟁 넘어 부담구조 봐야

대학 등록금을 둘러싼 논쟁이 매년 반복되는 가운데 장학금을 반영한 학생들의 실제 부담 수준은 평균 등록금의 절반 안팎으로 분석됐다. 등록금 총액뿐 아니라 장학금 규모 등 실제 부담 구조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최근 발표한 '2025년 대학의 교육비'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전국 4년제 대학의 연간 평균 등록금은 695만4000원으로 집계됐다. 최저 등록금은 182만원, 최고 등록금은 1096만9000원 수준이다.

**4년제 평균 등록금 695만4000원  
1인당 평균 장학금 382만9000원  
등록금 57.4%, 장학금으로 충당  
학생 실제 떠안는 부담 절반 안팎**

설립 유형별로 보면 사립대학 평균 등록금은 769만2000원, 국공립대학은 400만4000원으로 나타났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이 1033만1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공학(773만5000원) ▲예체능(763만3000원) ▲자연과학(734만5000원) ▲인문사회(608만3000원) 순이었다.

◆ **장학금 평균 382만원·등록금의 57%**  
등록금만 놓고 보면 실제 부담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2024년 기준 4년제 대학 재학생 1인당 평균 장학금은 382만9000원으로 전년보다 25만2000원 증가했다. 2020년 334만

### 설립·계열별 대학 등록금

2025년 기준 전국 4년제 대학 ■ 사립 ■ 국공립 단위: 만원



4000원과 비교하면 4년 사이 약 48만 5000원 늘어난 규모다.

평균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은 2020년 50.9%에서 2024년 57.4%까지 상승했다. 단순 계산으로도 등록금의 절반 이상이 장학금으로 지원되는 구조인 셈이다.

설립 유형별로 보면 국공립대학의 장학금 비율은 84.1%로 사립대학(55.0%)보다 29.1%p나 높았다. 사립대학 가운데서는 비수도권 대학의 장학금 비율이 61.6%로 수도권 대학(48.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 최근 4년 평균 등록금 5.7% 상승

대학 평균 등록금은 최근 몇 년 사이 소폭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2025년 평균 등록금은 695만4000원으로 2021년 655만7000원보다 39만7000원(5.7%) 증가했다. 이는 장기간 이어진 등록금 규제 정책의 영향이 반영된 결과다. 정부는 2009년 이후 등록금 인상 억제 정책을 유지해 왔으며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국가장학금 II 유형 지원과 연계되는 등 사실상 인상 폭이 제한

되는 구조였다.

설립 유형에 따라 상승 폭에도 차이가 나타났다. 사립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2021년 대비 48만8000원(6.8%) 상승한 반면 국공립대학은 같은 기간 9만5000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재정 구조 차이와도 관련이 있다. 국공립대학은 정부 재정 지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등록금 의존도가 낮은 반면 사립대학은

등록금이 주요 재원으로 활용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지역별로 보면 사립대학 평균 등록금은 수도권이 807만1000원, 비수도권은 738만4000원으로 수도권 대학이 약 68만7000원 높았다.

최근 4년 평균 등록금 5.7% 상승  
사립대, 등록금 의존 높아 재정 부담  
국공립, 재정 지원 비중 상대적 우위  
총액보다 장학금·교육비 함께 봐야

교육계에서는 등록금 규제 정책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대학 재정 부담이 누적됐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노준 우석대 총장은 "지방 사립대는 17년째 이어진 등록금 동결로 재정적 어려움이 누적된 상황"이라며 "최근 등록금 인상으로 일부 숨통이 트였지만 여전히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데 대학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 사립대는 지역인재 양성과 평생교육, 지역사회 봉사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인 만큼 단순한 시장 논리나 구조조정만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일정 요건을 충족한 대학에 대해 안정적인 재정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등록금 인상 여부만을 두고 논쟁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실제 부담 수준과 대학의 교육 투자 구조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황인성 사총협 사무국장은 "그동안 등록금 논의가 인상 여부라는 단편적인 프레임에 머물러 있었다"며 "등록금 수준뿐 아니라 장학금 규모와 학생 1인당 교육비 등 대학의 교육투자 구조를 함께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metro

## “학령인구 감소·AI 전환... 대학 혁신 골든타임”

### >> 1면 '국·공립대 형평성'서 계속

같은 기간 사립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215만2000원 늘어나는 데 그친 반면 국공립대학은 707만1000원 증가했다.

등록금 대비 교육비 투자 규모 차이도 뚜렷하다. 2024년 기준 사립대학은 학생 1인당 평균 1738만6000원의 교육비를 투입했다. 이는 평균 등록금의 약 2.4배 수준이다. 반면 국공립대학은 학생 1인당 2592만5000원이 투입돼 등록금의 약 6.6배에 달했다. 등록금 수입 구조가 다른 점을 감안하더라도 대학 유형에 따라 교육 투자 여건 격차가 크게 벌어져 있는 셈이다.

지역별로도 교육비 격차는 뚜렷했다. 사립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수도권 대학이 1922만8000원으로 비수도권 대학(1506만5000원)보다 416만3000원 많았다. 국공립대학 역시 수도권 대학의 학생 1인당 연간 교육비가 3547만3000원으로 비수도권 대학(2350만원)보다 약 1197만3000원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 ◆ 고등교육 재정 '민간 의존 구조'

대학 간 교육비 격차는 우리나라 고등교육 재정 구조와도 맞물려 있다.

OECD 교육 지표에 따르면 한국의 고등교육 공교육비 비율은 43.3%로 OECD 평균(67.1%)보다 낮다. 반면 민간 재

원 비율은 56.7%로 OECD 평균(29.9%)보다 두 배 가까이 높다. 대학재정이 정부 재정보다 등록금 등 민간 재원에 더 크게 의존하고 있는 구조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 역시 OECD 평균에 못 미친다. 한국의 고등교육 단계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1만4695달러로 OECD 평균(2만1444달러)의 약 68.5% 수준이다. 대학 교육에 투입되는 공공 재원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의미다.

황인성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사무국장은 "국내 고등교육의 약 80%를 사립대학이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공립대학과의 교육비 투자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며 "사립대 학생들에 대한 형평성 있는 재정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장학금 확대를 통해 '반값 등록금'은 상당 부분 달성된 만큼 이제는 대학의 교육 질 제고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직접적인 운영비 지원 등 고등교육 재정 확충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민현 사총협 회장(인제대 총장)도 최근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서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대학 위기, AI 대전환이 맞물린 지금은 대학의 위기가 혁신의 골든타임"이라며 "고등교육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학 자율성을 기반으로 한 공정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Fighting!**

생명보험이  
**100세 시대**를 뛰는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

위기가 왔을 때 가장 빛을 발하는 금융,  
생명보험으로 준비하세요!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종신까지 든든한 생명보험이 삶의 여유를 드립니다.  
혜택도 보장도 평생 든든한 생명보험이 함께 합니다.

생명보험협회  
Korea Life Insurance Association

# 외국인 ‘공매도’, 글로벌IB ‘낙관론’… 요동치는 코스피

글로벌 IB, 코스피 8000선 전망  
외국인 투자자 위한 작전 의혹에  
“짜고치는 고스톱은 불가능” 일축  
휘둘리지 않는 체질개선 필요성  
다음 산업 부재… 구조 변화해야

최근 외국인들의 셀 코리아(한국 주식 매각)가 이어지는 가운데,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한국 증시에 대해 긍정적 전망을 잇따라 내놓고 있어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18일 모건스탠리가 코스피에 대해 “2년 내 7500~8500 수준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모건스탠리는 “지정학 상황이 언제 완화될지는 불확실하지만, 한국의 기업 개혁이 지속적으로 진전되는 테마가 될 것으로 본다”면서 이 같이 전망했다. JP모건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코스피 강세장 시나리오를 가정해 지수 목표치를 7500으로 제시했고, 씨티그룹도 올해 코스피 목표치를 기존 5500에서 7000으로 상향 조정했다.

◆“한국 증시, 개혁과 반도체가 이끌 것”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라는 악재에도 올해 코스피지수는 10% 남짓 올랐다. 뉴욕 증시의 S&P500 지수가 올해 10%가량 올랐고, 일본 닛케이지수는 10%,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도 10% 오른 것과 비교하면 크게 앞선다. 외국인 IB들이 한국 증시 비중 확대를 추천하는 이유는 구조적 기업 개혁과 반도체 호황을 든다.



ChatGPT로 생성한 ‘롤러코스터 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코스피’ 관련 이미지.

모건스탠리는 “한국 주식시장은 전세계적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와 에너지 가격 압박 속에 최근 고점 대비 의미 있는 조정을 겪었다”며 “동시에 국내 구조적 기업 개혁 속도는 꾸준히 유지되고 있으며 정책 이니셔티브가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분석했다. 정부의 자본시장 및 지배구조 개혁 정책 추진과 관련해 “큰 틀의 작업이 완료된 만큼 이제 정책의 균형에 더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며 상속세 개혁과 추가적인 자본 관리 인센티브가 포함될 것으로 봤다. 모건스탠리는 “국민연금과 기관 투자자들이 주주 행동주의에 적극 참여하면서 이해관계자의 참여 확대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짚었다.

노무라 최고치인 8000을 제시했다. 노무라는 코스피 상장사의 주당순이익(EPS)이 올해 129%, 내년 25%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1월(각각 96%, 23%)과 지난해 12월(각각 47%, 20%) 전망 대비 크게 높아진 수치다. JP모건은 양사의 올해 EPS가 현 컨센서스를 최대 40% 웃돌 수 있다고 봤다. 목표주가 역시 45~50%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고 분석했다. 신디 박 노무라 연구원은 “메모리 기업들이 2026년 한국 전체 순이익의 64%를 차지해 성장의 중심축이 될 것”이라며 “기업 지배구조 개혁이 실질적으로 이행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로 8000 선 돌파도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반면 외국인 IB들은 ‘잡나가는’ 미국 증시에 대해서는 신중한 의견을 내놓았다. 골드만삭스는 보고서를 통해 미국 증시가 ‘위험한 임계점’에 도달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S&P 500 선물 시장에서는 10년 만에 최대 규모의 순매도가 발생하며 기관 투자자들이 급격히 몸을 사리는 모습이다. 지난 2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위기감은 더욱 뚜렷하다. 기관들의 자금 흐름을 나타내는 순포지션이 2200억 달러 수준까지 급감했다. 이는 지수가 5000포인트 아래로 무너졌던 2024년 10월의 하락 패턴과 매우 유사하다. 골드만삭스는 결국 증시의 향방이 ‘유가’의 안정 여부에 달려있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짜고 치는 고스톱’  
글로벌 IB들의 한국 증시 추천에 대해 의심하는 시각도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에서 발을 쉽게 뺄 수 있도록 일부러 장밋빛 전망 보고서를 내놓은 게 아니냐는 것이다. 지난 2018년 글로벌 IB들이 한국 바이오주에 대해 ‘매도’ 리포트를 잇따라 내놓으면서 주가가 급락했고, 공매도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결과적으로 이익을 보면서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작전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실제로 이달 들어 20일까지 외국인 투자자들은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15조9555억원 순매도했다. 가장 많이 판 종목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였다. 외국인 비중이 66%를 넘는 공매도도 급증했다. 같은기간 코스피의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1조9409억원으로, 지난달 1조3440억원 대비 44.4% 급증했다. 이 기간 동안 거래대금 기준 공매도 상위 종목은 삼성전자(10조4475억원)와 SK하이닉스(5조5954억원)가 차지했다.

외국계 증권사 관계자는 “전문가들이 객관적으로 분석한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다”며 가능성을 일축했다. 국내의 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도 “리서치 부문과 트레이딩(매매) 부문은 엄격히 분리돼 있기 때문에 ‘짜고 치는 고스톱’은 불가능하다”면서 “외국계뿐만 아니라 다수 국내 증권사도 올해 워낙 반도체 업황 전망이 좋기 때문에 당분간 한국 증시가 반등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외국인에 휘둘리지 않는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반도체 수퍼 사이클이 끝나게 되면 산업보다 빨리 움직이는 자본시장 쪽에서 먼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현재는 반도체 다음 산업이 부재하다”며 “정부가 기업 거버넌스 체계 개편, 구조조정 움직임, 주주환원 기조 등을 꾸준히 유지하면서 중장기적인 성장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평가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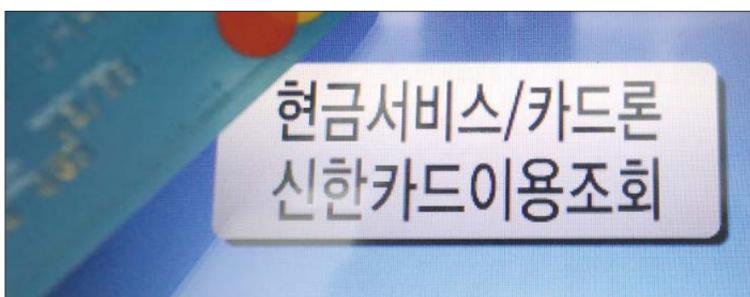
metro

## 지난달 카드론 잔액 3171억 급증… 대환대출도 확대

지난달 잔액 42조9022억 집계  
대출 규제·경기둔화 맞물린 결과  
대환대출 잔액 1.5조… 758억 ↑

서민들의 급진 창구인 ‘카드론’ 잔액이 지난달에도 늘며 43조원에 육박했다. 카드론 대환대출 잔액 증가세도 함께 관측되고 있다. 경기침체에 생활고를 겪는 차주들이 늘어나면서 카드론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다.

22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국내 9개 신용카드사(삼성·신한·KB국민·현대·롯데·하나·우리·비씨·NH농협)의 카드론 잔액은 42조9022억으로 집계됐다. 전월 말 잔액인 42조



서울 시내 한 현금자동입출금기(ATM) 기계에 표시된 카드론 문구. /뉴시스

5850억원 보다 3171억원 증가했다. 카드사별로 살펴보면, 신한카드가 8조1605억원으로 잔액 규모가 가장 컸다. 삼성카드가 6조7624억원, KB국민카드가 6조4279억원, 현대카드가 6조985

억원, 롯데카드 4조9227억원, 우리카드 4조2560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NH농협카드 3조3077억원, 하나카드 2조9289억원의 수준을 보였다. 실제 카드론 잔액은 급증하고 있는 추

세다. 지난해 카드론 잔액은 전년 대비 약 8조원 늘었다. 지난 2023년 마이너스(-)1조9000억원, 2024년 플러스(+)2조6000억원으로 증감을 보인다. 지난해 8조원으로 증가폭이 커진 것. 1년 새 증가 규모가 3배 이상 급격하게 커졌다.

올해 월별 증가 흐름도 지속되고 있다. 올해 카드론 증가폭은 지난 1월 2557억원에서 2월 3171억원으로 확대됐다. 일각에서는 시중은행 대출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와 경기 둔화로 인한 불황형 대출 수요 증가 추세가 맞물린 결과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다만, 2월의 경우 설 연휴 전후의 일시적 자금 수요가 반영됐을 수 있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문제는 카드론 대환대출 잔액 증가 현상도 함께 관측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환대출은 기존 카드 대출 상환을 위한 신규대출을 의미한다. 지난달 카드론 대환대출 잔액은 1조5399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758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8월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큰 규모다.

전체 카드론 잔액 대비 증가 속도도 가파르다. 지난달 전체 카드론 잔액이 전월 대비 0.8% (42조5850억원→42조9022억원) 증가한 가운데 대환대출 잔액은 5% (1조4641억원→1조5399억원)대 수준으로 증가했다.

한편, 지난달 현금서비스 잔액은 6조193억원으로 전월 대비 803억원 감소했다. 결제성 리볼빙 이월 잔액은 6조8353억원으로 같은 기간 1159억원 증가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metro

## 금감원, ‘사전차단’으로 소비자 보호… 빗투·ELS 등 점검

자금 쏠림·시장 변동성 확대 속  
투자 경험 부족 청년층 리스크 노출  
SNS 자본시장 교란행위 단속도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피해 대응 방식을 ‘사전 차단’ 중심으로 전환한다.

23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0일 제1차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를 열고 최근 자금 쏠림과 시장 변동성 확대 속 소비자 위험요인을 점검했다. 해당 협의회는 금감원장 주재 최고위 협의체로, 위험요인 발굴부터 검사·제재까지 연결하는 상시 대응체계로 운영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사진)은 “그간 사후 규제 중심이던 소비자 보호 방식에서 벗어나 소비자 입장에서 피해 우려요인을 사전에 인지하고 보다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이 가장 크게 본 리스크는 레버리지 투자 확대다. 협의회 후 백브리핑에서 이세훈 수석부원장은 “빗투를 신용융자만으로 보면 실제 위험을 제대로 보기 어렵다”며 “여러 금융권에 걸친 레버

리지 자금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총량 규제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통장은 투자 목적의 사용도 많아 일괄적으로 규제하기는 어렵다”며 “총량을 직접 관리하기보다는 금융회사들이 변동성 확대를 반영해 신용심사를 더 엄격히 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학자금 대출 등 일부 자금이 투자로 흘러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규모는 크지 않더라도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종합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고령층 중심으로 신

용융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최근 고령층은 자산 규모도 크고 투자 접근성도 높아 단순히 취약계층으로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투자 경험이 부족한 청년층이 더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주거연계상품 판매 확대에 대해서는 강한 경고가 나왔다. ETF 신탁, ELD 등 실적연동형 상품 판매가 급증하는 가운데 금융회사의 실적 경쟁이 불완전판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다.

이 수석부원장은 “ELS의 대체상품을 특정하기보다는 은행에서 판매되는 실적연동형 위험상품 전반을 보고 있다”며 “상품 자체보다 판매 과정에서의 설명부실이나 이해 부족이 문제”라고 짚었다.

전산사고 대응도 강화된다. 그는 “최근 사고들은 복잡한 원인보다 기본적인 관리 소홀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경우 감정을 최소화하고 금전적 제재를 강화해 금융회사들이 사전에 투자와 통제를 강화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원장은 유튜브·SNS 인플루언서 등을 통한 자본시장 교란 행위와 관련해 “업권 전반을 아우르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적시에 적발·근절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금융상품이 복잡·고도화되는 흐름에 맞춰 금융 소비자 교육 강화 필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metro

Samsung  
Financial Networks

삼성금융 연금력



수익률



시장점유율



안정성



전문성



고객편의

당신의 퇴직연금에 필요한 '모든 능력'

# 삼성생명 DC/IRP

직장인에게 퇴직연금은  
그냥 돈이 아니니까  
수익률과 안정성, 전문성과 고객편의까지

퇴직연금이 갖춰야 할 모든 능력  
튼튼한 삼성생명에 있습니다.

· 투자자는 퇴직연금에 대하여 삼성생명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입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DC/IRP]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1억까지" (운용되는 금융 상품 판매 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 [실적배당형(펀드) 상품]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 2025-07477호 \(2025.11.06-2026.11.05\)](#)

보험을 넘어서는 보험  
**삼성생명**

# 李 “부동산정책 0.1%도 허점 없어야”… 다주택자 배제 지시

정책과정 다주택·고가주택자 제외  
신뢰도 강화·개혁 의지 재차 강조  
5월 양도세 중과 전 추가대책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논의와 결정 과정에서 다주택을 보유한 공직자 등을 배제하라고 지시했다. 공직사회를 향해 확고한 부동산 개혁 의지를 보여주면서, 정책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X(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 입안, 보고, 결정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 중의 핵심 과제이고, 부동산이나 주택정책에서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대전 대덕구에서 발생한 안전공업 화재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뉴스시스

는 안 되기 때문”이라며 이 같은 지시를 내린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다주택자나 투자·투기용 비거주 주택 보유자, 초고가주택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다”면서 “주택 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집값이 오르도록 세제·금융·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

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제도를 만든 공직자나 그런 제도를 방치한 공직자가 그 잘못된 제도를 악용해 투기까지 한다면 그는 비판을 넘어 제재까지 받은 게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지금부터라도 부동산 주택 정책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겠다”며

“부동산 특히 주택가격 안정은 이 정권의 성패가 달린 일이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정책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차원’이라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올해 들어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등에 대한 규제 강화 필요성을 거론하며 부동산 안정화 의지를 여러 차례 드러낸 바 있다.

현재 정부는 오는 5월9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를 대비해 추가 부동산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주택 보유자의 매각을 유도하는 정책이 나와야 하는데, 정책 설계 과정에 다주택 공직자들이 참여해 정책에 ‘구멍’이 생기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만일 이 같은 조치가 미흡할 경우 정책 신뢰도가 떨어지고 과거 문재인 정부 ‘LH 사태’처럼 정부 신뢰도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간 청와대는 다주택 공직자는 자율적으로 보유주택을 매각하도록 권고해

왔다. 국민에게 강제 매각을 요구하기 어려운 것처럼, 공직자 역시 마찬가지로. 하지만 최근 야권을 중심으로 청와대 인사들의 다주택 보유나 농지 투기 의혹 등이 문제로 제기되며, 고강도 조치를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의 지침은 각 부처에 전달된 상황이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 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택 정책 담당자들에 대한 부동산 보유 현황을 파악 중이며, 이후 업무 배제 조치 같은 것들을 시행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 수석은 “이 대통령은 다주택을 강제로 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처분하는 게 더 유리한 정책 수단을 마련하겠다고 말씀하셨다”며 “그런 상황에서 주택 정책을 하는 담당자들이 정책 설계에 참여하는 게 맞느냐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metro

## 지선·개혁 동시투표 추진… 국민의힘 협조 여부 ‘관건’

개혁안, 계엄 통제 강화 등 골자  
국힘 개혁 공감, 동시 투표 반대

6·3 지방선거와 개혁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이야기가 정치권에서 나오면서,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하지만 현재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개혁을 논의 중이라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과 함께 오는 30일 개혁추진을 위한 2차 연석회의를 연다. 우 의장은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들 정당들의 원내대표를 초청해 개혁 논의를 위한 제정당 연석회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정당은 지선과 개혁 국민투표를 동시 진행하는 데 찬성했다.

개혁 논의는 우 의장이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권 강화 ▲5·18 민주화 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지역 균형 발전 정신 반영 등을 골자로 한 개혁안을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단계적·점진적 개혁을 준비하자고 힘을 실으며 논의가 가속화됐다.

그간 정치권에서 개혁 논의는 여러 번 있었지만 늘 실패했다. 2018년의 경우 문재인 정부가 헌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민주당도 개혁을 추진했지만 국민투표법 미비와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정치권에선 “6공화국 헌법은 애초에 개정하기 어렵게 만들어놨다”면서 “그간 헌법을 뜯어고쳐 독재를 했던 역사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였다.

이 때문에 우 의장과 이 대통령은 5·18 민주화 운동 정신 등 진영과 관계 없이 합의된 것을 토대로 ‘점진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꺼낸 것으로 보인다. 권력구조 개편과 대통령 권한 등을 쟁점이 많은 사안을 논의하기 시작하면 개혁을 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우선 민주당은 지선과 동시에 개혁 국민투표를 하려면 내달 5월11일까지 개혁안의 국회 의결을 마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게 가능하려면 헌법 개정안은 내달 7일까지 발의해야 한다. 약 2주 정도 시간이 남은 상황인 셈이다.

문제는 국민의힘이 아직 개혁 논의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개혁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국민투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현재 재석 의원 295



우원식 국회의장이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원내 6개 정당 원내대표들과 회동하기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기본소득당 용혜인 원내대표,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원내대표. /뉴스시스

명 기준으로 3분의 2인 197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161석)과 범여군소 정당 전체(18석), 개혁신당(3석), 무소속(5석·구속된 강선우 의원 제외)까지 포함해도 187석이다. 국민의힘(107석)에서 최소 1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개혁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지선 동시 국민투표’는 반대하고 있다. 우 의장과 범여권 정당들이 추진하는 개혁은 대통령 권한과 임기 등 권력구조 개편이 빠진 ‘졸속 개혁’이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번 개혁안이 정치권 전반이 수용할 수 있는 선언적 내용 중심이므

로 국민의힘이 마냥 반대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있다. 당내에서도 개혁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당내 최다선인 6선 조경태 의원은 “개혁안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하길 바란다”고 했고, 소장파로 분류되는 김용태 의원은 “당론으로 (개혁안을) 반대하는 것이 당에 어떤 이득이 될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에 향후 표결 과정에서 일부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단 우 의장과 민주당 등은 우선 개혁추진 2차 연석회의까지 국민의힘을 최대한 설득할 방침이다. /서예진 기자

## 대전 화재현장 찾은 與 “철저히 조사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 예방 태스크포스(TF)가 22일 대전 대덕구 자동차 부품 공장 화재 현장을 방문해 피해 및 사고 수습 현황을 점검했다.

김주영 민주당 산재 예방 TF 단장은 이날 화재 현장을 방문해 고용노동부 대전지청으로부터 재해 현황, 유가족 지원 방안 등을 보고 받았다. 박해철 TF 간사, 김태선·이우용·김윤 위원, 박정현 의원이 동행했다.

이들은 현장 방문 이후 대전시청 1층에 마련된 합동 분향소를 찾아 유가족을 위로했다.

김주영 단장은 “현장에서 확인한 사고 양상은 참담하다”며 “불법 증축이 의심되는 복층 구조에서 다수의 희생자가 발견됐다는 점은 우리 산업 현장의 안전 불감증과 관리 사각지대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준다”고 했다.

이어 “발화 원인뿐 아니라 해당 공장의 불법 건축물 여부, 소방 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 평상시 안전 교육 및 대피 훈련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해철 민주당 대변인도 같은 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일터로 출근했던 노동자들이 가족의 품으로 안전하게 돌아가지 못하는 비극이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다시는 일터가 죽음의 장소가 되지 않도록,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이번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안전 관리 시스템에 구멍은 없었는지 향후 사고 원인 조사가 철저하고 명명백백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쟁기겠다”며 “남겨진 유가족분들과 피해 노동자분들이 또 다른 억울함을 겪지 않도록 합당한 보상과 치유 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박경수 인턴기자 gws0325@

## 장동혁, 대구 공천 잡음에 “모두 제 책임”

대구 찾아 “공정한 경선 위해 최선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시장 후보 공천을 둘러싼 당내 잡음이 커지자 “모든 것이 당 대표인 제 책임”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대구 수성구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대구 지역 국회의원들을 만나 “공천과 관련해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잡음이 계속되면서 마음이 무겁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 대구 의원들을 만나 대구 시민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민심을 듣고 청취하겠다”며 “그 민심이 (공천관리위원회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이날 비공개 연석회의에는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주호영(6선)·윤재욱

(4선)·추경호(3선) 의원을 비롯해 초선인 유영하·최은석 의원을 비롯한 대구 의원 12명 전원이 참석했다.

장 대표는 연석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 말씀을 정리하면 대구시장 공천에 대해서는 대구 시민을 믿고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시민 공천’을 해달라는 취지로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그는 “공천 과정에 여러 이야기가 나온 것에 대해 당 대표로서 죄송스럽다”며 “공관위원장과 소통해서 여러 상황

들이 빨리 종료되고 시민들도 납득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낼 수 있는 공천이 되도록 대표로서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경선 방식을 두고는 “공정한 경선 방식”이라며 “경선을 통해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기도 하지만, 경선에 참여했던 지지자들의 표심이 갈라지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공정한 경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보민 인턴기자 kbm@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 모두를 위한 금융, 함께 가는 성장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

모두의 희망이 하나로 모여 따뜻한 내일로 나아갑니다.  
하나금융그룹은 진심이 담긴 포용 금융으로 손님의 성장을 이어갑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보증부대출

금융취약계층  
자립 지원

지역  
골목상권 지원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 제공



##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

하나금융그룹은 국가 미래 성장과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해 2030년까지 5년간 총 100조원을 투입하여 생산적 금융과 포용 금융을 실천하겠습니다.  
• 금융이 필요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포용 금융 지원 • 서민·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 금융 지원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

# 시중은행, 인뱅지분 처분 잇따라… 핵심사업에 자본 재배치

우리은행 케이뱅크 지분 일부 매각 지분을 9.22%로… 658억 이익 거둬 국민은행 카뱅 지분 5% 미만 유지 주식 보유목적 '단순투자'로 전환 하나은행 토스 회수시점 잡지못해



(왼쪽부터)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CI.

/각사

시중은행들이 보유 중인 인터넷은행 지분을 잇따라 처분하고 있다. 자체 디지털 역량이 고도화되면서 출범 초기 기대했던 혁신 노하우 공유 등 시너지 효과는 약화된 반면, 투자금 회수(엑시트)를 통한 자본 효율성 제고 필요성은 커졌기 때문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카카오뱅크 지분 4.88%, 우리은행은 케이뱅크 9.22%, 하나은행은 토스뱅크 8.95%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시중은행들이 인터넷은행 지분을 파는 이유는 디지털 경쟁력 격차가 예전만큼 크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시중은행들은 인터넷은행의 플랫폼 운영 방식과 비대면 서비스 설계 역량을 흡수하기 위해 전략적 투자자(SI)로 참여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시중은행들도 모바일 앱 고도화, 인공지능 상담, 비대면 대출 심사, 데이터 기반 마케팅 체계 구축 등에 속도를 내면서 인터넷은행으로부터 별도의 혁신 노하우를 이전받아야 할 유인은 줄었다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지분 회수를 단순한 투자금 회수가 아닌 전략 변화로 해석하고 있다. 인터넷은행들을 통해 디지털 전환의 방향성을 학습하던 초기단계

에서 벗어나 이제는 각 은행들이 자체 플랫폼 경쟁력을 확보한 만큼 지분투자를 줄이고 핵심 사업에 자본을 재배치하는 흐름이란 분석이다.

이러한 흐름은 실제 지분 매각으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은행은 케이뱅크 상장 당일 보유 지분 일부를 매각해 지분율을 11.08%에서 9.22%로 낮췄다. 753만6442주를 주당 8738원에 장내 매도하며 약 658억원의 이익을 거뒀다.

시중은행들이 인터넷은행 지분을 정리하는 배경에는 자본 효율성 제고 필요도 자리 잡고 있다.

바젤Ⅲ 규제에 따르면 은행이 보유한

주식 지분에는 250%의 높은 위험가중치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지분을 줄일 경우 위험가중자산(RWA)을 낮추고 보통주자본비율(CET1)을 개선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우리은행 역시 이번 매각을 통해 약 1645억원 규모의 RWA를 줄인 것으로 추산된다.

국민은행도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국민은행의 카카오뱅크 지분은 지난해 말 기준 4.88%로, 5% 미만을 유지하면서 탄력적인 매각이 가능한 구조다. 국민은행은 해당 지분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로 전환했다.

국민은행은 설립 초기 전략적 투자자(SI)로 참여해 약 10% 수준의 지분을 확보했지만, 이후 일부 지분을 처분하며 차익을 실현했다. 평균 매입단가 대비 높은 가격에 매각하면서 수천억원 규모의 투자수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비상장사인 토스뱅크 지분을 보

유한 하나은행은 아직 뚜렷한 회수 시점을 잡지 못하고 있다. 토스뱅크가 상장 전 단계에 머물러 있는 만큼 당분간은 지분법 이익 확보에 무게를 둘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금융권에서는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 간 관계가 출자 중심에서 사업 협력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에는 인터넷은행을 통해 디지털 역량을 빠르게 흡수하는 것이 중요했다면, 현재는 각 은행이 자체 경쟁력을 확보한 만큼 자본 투입보다 선택적 제휴가 효율적이라는 판단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인터넷은행이 더 이상 '벤치마킹 대상'이 아니라 경쟁과 협력의 대상이 된 상황"이라며 "향후에는 지분 관계보다는 데이터·플랫폼 기반의 제휴 중심으로 협력 방식이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나우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metro

## “초·중·고 안심통학… 도림·안양천 ‘천세권’”

### 부동산 현장 르포

#### 영등포 ‘더샵 프리엘라’ 견본주택

최근 찾아간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더샵 프리엘라’ 견본주택. 사전예약제로 운영해 시간당 최대 70팀까지 방문객을 받았다.

더샵 프리엘라는 포스코이앤씨가 '문래 진주아파트' 재건축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단지다. 영등포구 문래동 5가 일원 지하 3층~지상 최고 21층, 6개 동, 총 324가구의 규모로 조성된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 44~84㎡ 138가구가 일반 분양 물량이다. 타입별로는 ▲44㎡ 14가구 ▲59㎡ 37가구 ▲74㎡ 43가구 ▲84㎡ 44가구로, 실수요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위주다.

단지는 지하철 2호선 도림천역이 걸어서 5분 거리에 있고, 2호선 문래역과 5호선 양평역을 통해 여의도·광화문·강남 등 주요 업무지구로 이동하기에 편리한 입지다. 영문초, 신도림고 등 초·중·고교가 가까워 안심 통학이 가능하며 신정고 하나만 건너면 바로 목동 학원가에 닿는다. 도림천과 안양천을 끼고 있어 '천세권'도 누릴 수 있다.

#### ◆ 다양한 옵션… 구조 변화

견본주택에는 전용 84㎡A 타입의 유니트 하나가 마련됐다. 4베이 판상형 구조로, 라이프스타일 변화와 주부 수요를 반영해 다양한 최신 옵션을 준비했다는 설명이다.

현관에 들어서면 침실 2개가 먼저 눈에 들어온다. 자녀방은 발코니 확장을 통한 공간 활용을 강조했고, 불박이장은 옵션으로 구성됐다. 두 번째 침실을 지나면 거실과 주방이 나오는데 시야가 열리며 공간이 확 트인다. 거실은 우물형 천장을 적용해 간접조명이 테두리를 따라 들어가고, 중앙은 한 단계 들어올린 구조다. 기본 천정고는 2.35m로 설계됐지만 우물 천장으로 인해 침실보다 거실의 층고가 더 높아보인다.



‘더샵 프리엘라’ 견본주택 방문객이 단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성채리 인턴기자

‘우물천장’ 거실, 층고 높아보여 74㎡·84㎡ 홀수층·짝수층 따라 발코니 유·무, 위치 다르게 설계 문래동 일대 1300여 가구 규모 ‘더샵 브랜드타운’ 조성 기대감

옵션을 선택하면 주방 공간이 크게 달라지는 점도 특징이다. ‘프리미엄 키친’을 적용하면 아일랜드 식탁이 확장되고 냉장고 위치도 바뀐다.

가장 특화된 공간은 드레스룸이다. 안방 드레스룸은 양쪽 벽면에 옷을 보관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이 확보돼 있다. 조명형 벽판넬 시스템가구는 쇼룸 같은 분위기를 연출한다. 발코니 설계에도 변화를 줬다. 74㎡와 84㎡는 홀수층과 짝수층에 따라 발코니 유무나 위치가 달라진다. 이 때문에 같은 타입이라도 방의 면적이 달라질 수 있다.

#### ◆ “관심 가질 수밖에 없는 입지”

견본주택 방문객들은 입지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었다.

문래동에서 아이 2명(초등학교 3학년, 6세)을 키우는 30대 A씨는 “초·중·고가 모두 가까워 아이 키우기에 괜찮은 입지”라며 “전용 84㎡를 선호하지만 청약 가점이 부족한 것 같아 어떤 평형을 선택할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안산에 사는 50대 부부도 입지에 높은 점수를 줬다. 이들은 “영등포

구에 원래 관심이 많아서 신축 단지를 찾아보던 중 새로 분양을 한다길래 와 봤다”며 “유니트를 둘러보니 드레스룸이 넓고 방도 커보여서 괜찮은 것 같다”고 했다.

문래동은 일대 정비사업과 연계된 변화가 기대되는 곳이기도 하다. 포스코이앤씨가 문래현대2차, 문래현대5차, 대원아파트 리모델링 사업과 함께 약 1300여 가구 규모의 ‘더샵 브랜드타운’을 만든다고 밝혀 지역 가치가 더 높아질 것이라 관측이 나온다.

문래동의 한 부동산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서울에서 신규 공급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서 청약에 넣어볼 만하다는 반응이지만 가격과 대출 규제로 접근이 쉽지는 않다”면서도 “직주근접이나 학군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젊은 수요가 꾸준히 유입되는 곳이라서 미래 가치를 기대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더샵 프리엘라의 분양가는 전용면적 별로는 ▲44㎡ 8억4200만~8억8500만원 ▲59㎡ 11억8300만~13억원 ▲74㎡ 13억9400만~15억7000만원 ▲84㎡ 16억6000만~17억9800만원 수준이다.

더샵 프리엘라 청약은 오는 2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4일 해당지역, 25일 기타지역 1순위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는 오는 4월 1일 발표하며 계약은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진행한다.

/성채리 인턴기자 cr56@

## K-컬처에 5년간 정책금융 28조 투입

수은, 콘텐츠 제작부터 전 과정 지원

한국수출입은행은 ‘K-컬처’를 우리 경제의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키우기 위해 향후 5년간 28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수은은 ‘K-드라마’·‘K-팝’ 같은 콘텐츠가 인기를 끌며 뷰티·푸드·패션 수출까지 함께 늘어나는 효과에 주목했다. 이에 콘텐츠 제작부터 플랫폼 유통, 소비자 판매, 해외 현지 법인·물류까지 K-컬처 산업의 전 과정을 빠짐없이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수은은 ▲최대 1.5%포인트(p) 특별 우대금리 도입 ▲K-컬처 블라인드 펀드 조성 ▲인수합병(M&A) 자금 지원 ▲신흥시장 진출 지원 등 네 가지를 지원한다.

우선 K-컬처 산업에 최대 1.2%p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대기업과 중소·중견 협력사의 동반성장을 이끄는 ‘상생금융 프로그램’ 참여 기업에는 0.3%p를 추가한 최대 1.5%p까지 금리를 우대한다.

유통 플랫폼을 K-컬처 해외 확산의 전초기지로 육성하기 위해 금융 문턱도



/한국수출입은행

대폭 낮춘다.

구체적으로 플랫폼 기업의 수출실적을 기반으로 수출자금을 지원하되, 번거로운 수출실적 확인 절차를 간소화해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플랫폼 대기업에 중소기업 수출제품 구매자금을 지원해 금융의 혜택이 중소기업으로 막힘없이 흐르는 ‘상생의 선순환 생태계’를 도모한다.

대출 일변도에서 벗어나 투자를 확대하는 등 금융 지원방식을 다각화한다. 초기 단계 기업의 성장 자금 확보 등을 돕기 위한 ‘K-컬처 블라인드 펀드’를 조성하는 한편, 세계 시장을 겨냥한 ‘프로젝트 펀드’ 투자도 더 확대할 계획이다. /나우리 기자

## KB국민은행, 소비자보호위원회 신설

25일 주총 거쳐 이사 3인 구성

KB국민은행은 오는 25일 정기 주주총회를 거쳐 이사회 내 소위원회인 ‘소비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번 소위원회 신설은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9월 발표한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을 선제적으로 이행하고, 소비자보호를 은행 경영 전반의 핵심 시스템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소비자보호위원회는 이사회 내 전문 소위원회 형태로 운영되며, 소비자보호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를 포함한 총 3인의 이사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반기 1회 정기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수시로 개최해 소비자보호 관련 경영 전략과 정책을 직접 심의하고 의결하는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위원회는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체계 구축 및 운영 기본방침 수립 ▲성과보상체계(KPI)에 대한 소비자보호 관련 점의 평가 ▲금융감독원 실태평가 및 검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관리 등을 통해 이사회 차원의 소비자보호 체계 고도화를 진행할 계획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 TSMC 첨단공정 포화에 독식 깨지나... 삼성 파운드리 재부상

AI 칩 급증에 TSMC 공정 포화  
고객사 분산생산... 삼성 일부 발주  
엔비디아·테슬라 이어 퀄컴 검토  
삼성 파운드리 가동률 80% 회복  
공급망 재편에 수주 확대 기대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해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엔비디아 지포스 게이머 페스티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에서 TSMC 중심의 생산 구조에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급증한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를 TSMC가 단독으로 소화하기 어려워지면서 일부 생산이 삼성전자 파운드리로 이동하는 흐름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TSMC는 3나노 이하 첨단 공정에서 높은 가동률을 유지하며 수요 대응에 부담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AI 반도체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생산능력 확충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고객사 전략 변화도 나타나고 있다. 기존처럼 한 파운드리에 생산을 집중하기보다 일부 물량을 다른 업체로 나눠 맡기는 방식이 확산되는 흐름이다.

대표적으로 엔비디아는 AI 추론용 칩 일부를 삼성 4나노 공정에서 생산하고

있다. 테슬라도 차세대 자율주행용 칩 일부를 삼성에 맡길 것으로 알려졌다. AMD 역시 삼성과의 협력 확대 가능성이 거론되며 점점 넓어지는 분위기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은 여전히 한 자릿수 수준이지만, 주요 빅테크 기업과의 협력이 확대되며 수주 기반이 넓어지고 있다.

퀄컴의 움직임도 변화 신호로 꼽힌다. 과거 삼성 파운드리에서 TSMC로 생산을 옮겼던 퀄컴은 최근 차세대 2나노 공정과 관련해 삼성과 협력을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같은 변화는 삼성 파운드리 가동률에도 반영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파운드리 생산라인

가동률이 80%를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비어 있던 생산라인이 다시 채워지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이날부터 이틀 일정으로 중국 베이징 다오위타이 국빈관에서 열리는 중국발전고위급포럼(CDF)에 참석한다. 글로벌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들이 모이는 자리로, 반도체를 포함한 공급망과 인공지능(AI) 산업 협력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변수도 있다. 테슬라는 최근 초대형 반도체 생산공장 '테라랩' 구축을 추진하며 자체 생산 역량 확보에 나서고 있다. 현재 삼성전자와 TSMC에 맡기고 있는 반도체 생산을 장기적으로 내재화할 경우, 파운드리 업계에는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4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테라랩 프로젝트를 일주일 안에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을 단순한 수주 증가가 아니라 시장 구조 변화의 초기 단

계로 보고 있다. AI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단일 기업 중심의 생산 방식이 한계에 부딪혔고, 그 결과 일부 물량을 나눠 맡기는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삼성에는 메모리와 파운드리, 패키징을 함께 운영하는 구조를 기반으로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특히 HBM과 로직 반도체를 결합한 패키징 수요가 늘어나면서 통합 생산 역량이 경쟁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다.

반면 SK하이닉스는 기존 공급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엔비디아 등 주요 고객사에 HBM을 공급하며 이미 생산 물량이 확보된 상태로, 이번 변화는 파운드리 중심으로 나타나는 흐름이라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AI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특정 파운드리에 생산을 집중하기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고객사들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생산 거점을 분산하는 과정에서 삼성도 대안으로 다시 거론되고 있다"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metro

## LGD, '옥사이드 1Hz' 세계 첫 양산

화면 따라 1~120Hz 자동 전환  
배터리 효율 48% 이상 개선  
델 XPS에 적용, OLED 확대 추진



LGD디스플레이가 '옥사이드 1Hz' 기술을 개발해 세계 최초로 양산에 성공했다. /LGD디스플레이

LGD디스플레이는 배터리 사용량을 절반 가까이 늘릴 수 있는 '옥사이드(Oxide) 1Hz' 기술을 적용한 노트북용 LCD 패널을 세계 최초로 양산한다고 22일 밝혔다. '옥사이드 1Hz' 패널은 사용자의 노트북 사용 환경을 지능적으로 판단하여 1Hz에서 최대 120Hz로 주사율을 자동 변환한다.

예를 들어 메일·이북(e-book)·논문 확인 등 정적인 작업을 위해 화면이 정지되면 1Hz의 최저 주사율 모드로 작동한다. 사용자가 마우스를 움직이거나 OTT·영화·스포츠 경기 등 동영상, 또는 화면 변화가 많은 게임을 시작하면 최대 120Hz 고주사율 모드로 자동 변환된다.

주사율은 1초 동안 한 화면이 새로 그려지는 횟수를 의미한다. 주사율이 높을수록 깜박거림이 줄어들면서 부드럽고 선명하게 표시되는 장점이 있다. 반면, 정지 화면에서 높은 주사율을 유지하면 같은 화면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회로 구동에 따른 전력이 계속 낭비되는 단점도 공존한다.

이에 LG디스플레이는 화면 변화에

따라 새로고침 빈도를 유연하게 조절해 전력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패널을 개발, 세계 최초로 양산에 성공했다.

LGD디스플레이는 '옥사이드 1Hz' 패널을 대량 양산하기 위해 회로 알고리즘 및 패널 설계 기술을 자체 개발하고, 신규 재료를 발굴해 적용했다. 이 과정에서 저주사율 구동 구간 내 전력 누설이 가장 적은 옥사이드 산화물을 디스플레이 박막트랜지스터(TFT)에 적용해 고효율 디스플레이를 완성했다.

이를 활용하면 배터리 사용량을 기존 대비 48% 이상 늘리는 등 배터리 효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노트북의 경우, 이동성이 중요한 구매 요소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고효율 배터리로 사용 시간을 늘리면 이동성도 크게 향상돼 소비자 편의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차현정 기자 hyeon@

## 퀄컴 칩 탑재 'AI 스팀' 로봇청소기 전시

삼성 암참 행사서 분해 제품 공개



지난 20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암참) 연례 행사에서 삼성전자 직원이 참석자들에게 2026년형 '비스포크 AI 스팀'의 특징을 소개하고 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지난 20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이하 암참) 연례 행사에서 2026년형 '비스포크 AI 스팀' 로봇청소기를 전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AI, 당신에게 더 가까이'라는 주제로 퀄컴 '드래곤왕'을 탑재한 가전, 모바일, PC 등 다양한 제품이 전시됐고, 삼성전자 '비스포크 AI 스팀' 로봇청소기도 전시됐다.

특히 삼성전자는 '비스포크 AI 스팀'의 제품을 분해해 전시해, 참석자들이 '비스포크 AI 스팀'의 강력한 AI 기능과 보안 성능을 구현하는 퀄컴 프로세서와 보안칩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월 출시된 2026년형 '비스포크 AI 스팀'은 퀄컴의 차세대 산업용 프로세서 '드래곤왕' 칩과 함께 3D 듀얼 장애물 센서, 라이더 센서, 초음파 센서 등 5

개 센서가 적용돼 뛰어난 AI 인식·주행 성능 제공한다.

장애물 센서는 사람의 눈과 동일한 방식으로 카메라 두 대를 통해 물체를 보며 거리를 계산해 효율적으로 작동한다. 또 각 센서들로부터 수집된 14가지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바다 환경을 정밀하게 구분하고, 물결레 사용 여부와 흡입력을 자동으로 조절한다.

/차현정 기자

## 철강업계, 생산현장 AI 전환 본격화

포스코·현대제철, DX 조직 재편  
공정·품질·설비 안전에 AI 적용  
자율형 제철소 구현에 속도

철강업계가 생산 현장 중심의 디지털 전환(DX)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인공지능(AI)을 공정 운영과 품질 관리, 설비 제어에 직접 적용하는 단계로 진입하면서, AI 기반 기술 개발과 공정 운영을 현장 중심으로 결합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최근 기술연구원 산하에 공정DX연구소를 신설하고 기존 공정연구소를 개편했다. 공정DX연구소 내 로봇AI연구그룹은 올해

정기 조직개편을 통해 공식 출범했으며, 제어계측·제조로봇·제어AI 등으로 나누어 있던 연구 기능을 통합한 조직이다. 포스코는 이에 앞서 지난해 8월 포스코홀딩스 미래기술연구원에 있던 '로봇 및 AI 매뉴팩처링' 연구 기능을 사업회사인 포스코로 이관했다. 로봇·AI 연구를 생산현장과 가까운 곳으로 옮기고 관련 기능도 한데 묶어, 기술 개발부터 공정 적용까지 연계성을 높여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실제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포스코는 지난 2월 포항제철소 3소결 공정에 AI 기반 스마트 제어 시스템을 적용했다. 공정DX연구소와 제선부가 공동 개발한

해당 시스템은 조업 가동률 99%, 적중률 97%를 기록했으며 적용 범위도 기존 3소결에서 2·4소결로 확대되고 있다.

현대제철도 생산 현장 중심의 DX 체계 강화에 나섰다. 회사는 지난 2024년 12월 분산돼 있던 AI 기술 조직을 DT 전담 DX연구개발실로 통합 확대했다. 스마트팩토리 기획, 인프라 구축, 빅데이터 분석, 로봇 응용 연구를 한 조직에서 말도록 하면서 공정 최적화, 설비 안전 관리, 경영 효율화 등 전사 DX를 추진하고 있다.

세아제강은 SMART기술팀을 중심으로 현장 밀착형 DX를 추진하고 있다. AI 기반 물성 예측 시스템으로 완제품 품질을 사전 예측하고, AI 이상 탐지와 디지털 트윈 연계로 품질 리스크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고 있다.

/유혜은 기자 dhahrah@

## 삼성, 88주년 맞아... '기술 경쟁력 회복' 집중

별도 행사 없이 창립기념일 마무리

올해로 그룹 창립 88주년을 맞은 삼성은 별도의 기념행사가 없이 창립기념일을 조용히 보냈다. 최근 들어 삼성의 실적이 크게 회복세를 보였지만 미래 먹거리 선점을 위해 안주하지 않고 근본적인 기술 경쟁력 회복에 집중하겠다는 내부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22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은 이날 그룹 창립 88주년을 맞았지만 휴일과 겹치면서 별도의 외부 행사를 갖지 않았다. 이날은 고(故) 이근희 선대회장이 창립 50주년을

맞아 '제2의 창업'을 선언한 날이다.

삼성의 모태는 고 이병철 창업회장이 1938년 3월1일 대구에서 문을 연 '삼성상회'(현 삼성물산)다. 이근희 선대회장이 1988년 3월22일 창업 50주년을 맞아 '제2의 창업'을 선언하면서 이날을 창립 기념일로 기념해왔다.

이 선대회장은 삼성을 국내 기업에서 글로벌 초일류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1993년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꾸라'는 특명을 내린 그의 '신경영 선언'은 삼성이 명실상부 글로벌 일류 기업으로 도약하는 트리거로 작용했다.

/성영준 기자 ysv@

# ‘랭플릭스’로 넷플릭스·유튜브 보며 재밌게 영어 공부한다

(영어 학습 앱)

## 도전! 스타트업

### 세타원

영상에서 영어 단어·속어 자동 추출  
원어민 따라하는 웨딩 학습 최적  
월 사용자 1만명... 유료 구독자도 ↑  
일본어, 중국어 등 8개국 언어 활용  
AI 기반 STT 기술 자체 개발  
API 형태로 영어교육 기업 제공

“숫츠 보면서 영어공부하세요.”

‘영어공부계의 틱톡’을 꿈꾸는 에듀테크 스타트업이 있다. 한국을 시작으로 아시아, 유럽 등 글로벌 시장을 노리는 영어 학습 앱 ‘랭플릭스’를 개발해 선보이고 있는 ‘세타원’과 이를 이끌고 있는 안상민 대표가 그 주인공이다.

세타원은 사람의 말소리를 문자로 바꾸는 인공지능(AI) 기반의 STT(Speech-to-text) 기술을 자체 개발해 API(앱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형태로 영어 교육 기업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영어교육기업 YBM과 손 잡고 기술 고



안상민 세타원 대표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도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4년에는 ‘교육용 음성 처리 기술’로 중소벤처기업부의 딥테크 팁스(Deeptech TIPS) 프로그램에 선정되기도 했다.

“회사의 비즈니스는 영어 학습자들을 위한 B2C 앱 ‘랭플릭스(langflix)’와 B2B 시장을 공략하는 STT 기술 API 사업 두 축으로 진행하고 있다. 비영어권 사람들이 랭플릭스를 이용해 재미있게 영어 공부를 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다.”

세타원이 선보인 영어 학습 앱 랭플릭

스는 넷플릭스와 유튜브에 있는 수많은 영어 동영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유튜브 영상은 자신이 주소를 링크를 하면 된다. 넷플릭스 영상 중에선 랭플릭스가 저작권을 확보한 영화나 드라마를 제공하고 있다. 컴퓨터로는 보다 다양한 학습을 위한 이중자막 확장 프로그램도 이용할 수 있다.

안 대표는 “랭플릭스는 어떤 영상을 넣어도 자동으로 영어 단어·속어를 추출해준다. 특히 원어민 음성을 들으며 발

음, 억양 등을 따라하는 웨딩 학습에 최적화 돼 있다. 그래서 학습자는 썸 윈 어민 표현을 제대로 배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요즘엔 짧은 영상이 유행이다. 랭플릭스는 숫츠를 보면서 영어공부를 더욱 재밌게 할 수 있는 ‘숫츠 탭’ 서비스도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첫 선을 보인지 1년이 조금 넘는 랭플릭스는 현재 월 사용자가 1만명을 훌쩍 넘어섰다. 유료구독자도 점점 늘고 있다. 특히 새로 서비스할 숫츠 탭이 고객들의 발길을 더욱 이끌 것이라 기대다. 랭플릭스의 1년 구독료는 10만원이 채 되지 않는다.

랭플릭스는 영어를 한국어 뿐만 아니라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독일 등 8개국 언어로도 활용할 수 있다. 글로벌 진출을 목표로 언어 확장판을 이미 구축했기 때문이다. 유료 고객 대부분은 현재 한국인이다. 그러나 매출의 5% 정도가 일본에서 발생하고 있다. 좋은 징조다. 4월부터는 다양한 SNS를 활용해 해외 마케팅을 더욱 본격화할 계획이다. 랭플릭스는 한때 앱스토어 교육 부문에서 2위까지 올라가기도 했다.

세타원은 AI를 활용해 음성을 텍스트로 바꾸는 STT 기술을 더욱 고도화하고 있다.

안 대표는 “사람이 말하는 100개의 단어를 AI가 100개 모두 완벽하게 문자로 바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현재 우리는 95개 정도까지 왔다. 97개까지 완벽하게 바꿀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하는 게 목표다. 지금은 영어학습 모델 데이터가 대부분이지만 한국인의 음성 데이터에 특화된 STT 기술을 완성하고 싶다”고 밝혔다.

세타원의 STT 기술은 현재 DVB 최선 어학원에 제공하고 있다. LG유플러스에서 독립한 인큐랩플러스에도 아동용 STT 등 세타원 기술이 쓰이고 있다.

안 대표는 어렸을 때 스티브 잡스의 자서전을 감명깊게 읽었다. 대학에서 산업 공학을 전공하고 군대를 마친 후 창업 전선에 뛰어든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세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싶었다. 그리고 내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고 있다. 교육 분야는 그런 변화를 위한 첫 발걸음이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metro

## 신용도 낮은 소상공인도 신용카드 발급

중기부 ‘비즈플러스카드 지원사업’  
최대 1000만원 한도... 사용자 추가  
신용점수 요건·업력 기준 등 완화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용도가 낮은 소상공인들의 신용카드 발급을 돕는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비즈플러스카드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23일부터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비즈플러스 카드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담보로 해 소상공인이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결제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최대 1000만원 한도의 신용카드를 말한다.

올해는 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더 많은 소상공인이 보다 편리하게 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늘리고 사용자처를 추가했다.

우선 신용점수 요건은 기존 NICE 신용평점 595점~879점에서 595점~964점으로 확대했다. 업력 기준도 1년 이상에



세종시에 있는 중기부 청사 전경.

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한, 경기 신용보증재단의 ‘힘내GO 카드’, 부산 신용보증재단의 ‘3무 희망잇기 신용카드’ 등 지역신보의 유사 보증상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도 한도 제한 없이 최대 1000만원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비즈플러스카드로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를 통해 전기요금을 결제할 수 있어 인터넷에 취약한 고령층도 편리하게 전기요금을 납부할 수 있다. 도·소매 업종의 소상공인을 위해 의류, 잡화 등의 사용자처도 추가했다.

비즈플러스카드의 주요 혜택인 6개월 무이자 할부와 연회비 면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올해 신규 신청 소상공인은 보증서 발급에 대한 보증료를 직접 납부해야 한다. 대신, 작년과 달리 최대 5년 동안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비즈플러스카드 보증 신청은 23일부터 지역신보 ‘보증드림’ 앱으로 할 수 있으며, 보증 승인 후 IBK기업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카드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오는 4월 중순부터는 카드발급 신청도 앱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 공고문이나 지역신보 또는 IBK기업은행 영업점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중기부 최원영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이번 개편으로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비즈플러스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며 “많은 분들의 경영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 벤처협, 6개 기업과 중 ‘AWE 2026’ 참가

글로벌 시장 진출·수출 지원

벤처기업협회가 국내 우수 벤처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수출을 지원했다.

벤처협회는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글로벌 가전·소비자 전자 전시회인 ‘AWE 2026(Appliance & Electronics World Expo 2026)’에 6개 벤처기업과 함께 참가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통해 국내 우수 벤처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인하고 가시적인 수출 및 투자 유치 성과를 거뒀다.

‘AWE 2026’은 AI, 스마트홈, 스마트 가전, XR, 로봇틱스 등 미래 소비자 기술 트렌드가 집결되는 대형 산업 플랫폼으로, 올해는 1200개 이상의 글로벌 기업

과 20만명 규모의 관람객이 참여했다.

벤처협회는 이번 플랫폼을 적극 활용해 K-벤처의 혁신성을 세계에 각인시키고 질적 성장을 위한 글로벌 판로를 개척하는 데 주력했다. 이를 위해 참가 기업들이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파트너를 발굴할 수 있도록 전용 부스 운영과 현지 바이어 매칭 등을 전방위로 지원했다.

아울러 참여 벤처기업들은 제조·유통 관계자, 투자자, 정부 관계자 등의 현장 미팅을 통해 투자 연계 및 제품 현지화 등 구체적인 사업화 동력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루텐스는 13개 기관과 접촉해 이 중 4개사와 투자 및 계약을 협의 중이다.

/김승호 기자

## “서울 색, 아침 해 담은 ‘모닝옐로우’ 선정”

KCC, 서울시 표준 색상집 발간

KCC가 올해의 서울색 ‘모닝옐로우(Morning Yellow)’ 표준 색상집(사진)을 발간했다.

22일 KCC에 따르면 서울시와 손잡고 서울색이 공공시설과 민간 건축물, 각종 컬러버레이션 제품에 일관된 색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서울시 표준 색상집(Seoul Color Standard Collection)’을 제작·배포했다.

표준 색상집은 서울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공공디자인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공식 컬러 가이드로 올해의 색인 모닝옐로우를 비롯해 서울공공시설표준색, 서울안전색, 서울대표색 등이 담겨 있다.



앞서 KCC는 모닝옐로우 개발 과정에서 구현을 위한 기술 협력을 제공했다. 서울시는 시민이 촬영한 ‘서울의 아침 해’ 이미지 수천건을 분석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모닝옐로우를 2026년 서울색으로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KCC는 다양한 색상 후보군을 실물 기준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도로 조색 기술을 활용한 실물 색채 샘플을 제작해 제공했다.

/김승호 기자

## 중진공, 2000억 규모 회사채 발행 지원

‘스케일업금융 사업’ 참여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오는 4월 3일까지 ‘2026년 스케일업금융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22일 중진공에 따르면 스케일업금융은 우수한 사업성을 보유하고 있지만 자체 신용만으로는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직접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민간 자금과 정부 재정을 결합한 산유동화방식(P-CBO)을 활용해 일반

정책자금보다 대규모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스케일업을 뒷받침한다.

중진공은 이번 공고를 통해 약 2000억 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업은 최대 5년 만기로 120억원까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특히 혁신성장 분야, 초격차·신산업 분야, 도약(Jump-Up) 프로그램 선정기업 등 우수 중소기업에 중점 지원해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기업 중 신용평가사의 회사채 신용평가에서 B+등급 이상을 받은 기업이다. 기업당 지원 규모와 발행금리는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스케일업금융 신청은 중진공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34개 중진공 지역본·지부 또는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스케일업금융은 성장 잠재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자본 시장에서 직접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하는 사업”이라며 “스케일업금융을 통해 우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NARA CELLAR

# 역시! 몬테스



# 결국! 몬테스



**2025 브랜드 고객충성도 대상  
와인 부문 2년 연속 1위**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 붉은사막, 출시 첫날 200만장 돌파… 흥행 속 ‘완성도 과제’

스팀 최고 동시접속자 약 24만명  
그래픽·전투·오픈월드 구성 호평  
필어비스, 피드백 반영한 개선 예고

필어비스의 신작 ‘붉은사막’이 출시 직후 강한 흥행세를 보이고 있다.

22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붉은사막은 출시 첫날 전 세계 200만장 판매를 기록하며 글로벌 시장의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다만, 필어비스 측은 붉은사막의 초반 흥행이 성공적이지만 조작감과 시스템 완성도를 둘러싼 평가는 엇갈리는 만큼, 회사가 예고한 빠른 개선 작업이 장기 흥행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붉은사막은 지난 20일 글로벌 시장에서 정식 출시된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 게임이다. 필어비스가 장기간 개발한 대형 신작으로, 회색갈기 용병단의 클리프가 파이널 대륙을 무대로 동료들과 모험을 펼치는 서사를 담았다.

검은사막과 같은 세계관의 대륙을 공유하지만 별도 작품으로 기획됐으며, 광활한 오픈월드와 강한 액션성, 높은 수준의 그래픽 구현을 앞세워 출시 전



필어비스 붉은사막 출시 첫날 200만장 판매 대표이미지

/필어비스

부터 국내 게임업계 대표 기대작으로 꼽혀 왔다.

붉은사막의 출발은 강렬했다. 필어비스는 지난 20일 오후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붉은사막이 전 세계적으로 200만장 이상 판매됐다고 집계했다. 회사는 팬들과 커뮤니티, 게임 세계관인 파이널에 함께해 준 이용자에게 감사의 편지를 전하며, 커뮤니티에서 공유된 다양한 피드백에 귀 기울이고 빠르게 개선해 앞으로의 여정을 더 즐겁게 만들겠다고 했다.

출시 직후 스팀 최고 동시접속자 수

역시 약 24만명을 기록하며 글로벌 이용자 유입이 빠르게 이뤄지는 모습이다.

붉은사막은 스팀뿐 아니라 플레이스테이션5, 엑스박스 시리즈, 애플 맥, 에픽게임즈 스토어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동시 출시했다. 모바일 중심 흥행 공식에 익숙한 국내 게임업계에서 콘솔과 PC 기반 글로벌 시장을 정면으로 겨냥한 작품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출시 첫날 200만장 판매 역시 국내 게임 산업에서 이례적인 기록으로 받아들여진다.

게임에 대한 반응은 기대와 과제가

함께 나온다. 이용자들은 방대한 오픈월드 구성과 전투 연출, 시각적 완성도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반면 일부에서는 조작 체계가 다소 복잡하고, 시스템이 충분히 정제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화려한 액션과 높은 자유도를 구현했지만 이를 실제 플레이 경험으로 매끄럽게 연결하는 과정에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필어비스도 이런 반응을 빠르게 수용하는 모습이다. 회사는 조작법을 비롯한 플레이 경험 전반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초반 판매 성과에 안주

하기보다 이용자 체감 품질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대형 오픈월드 액션 게임은 출시 초반 평판이 이후 흥행 흐름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조작감과 편의성 개선 속도가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오른다.

붉은사막의 성과는 필어비스에도 적지 않은 의미를 갖는다. 그동안 필어비스는 검은사막 IP 중심의 성과를 이어왔는데, 붉은사막이 신규 흥행 IP로 안착하면 수익 구조 다변화와 글로벌 브랜드 확장에 힘을 받을 수 있다. 국내 게임사가 글로벌 AAA급 콘솔·PC 패키지 시장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시험대라는 점에서도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업계 관계자는 “붉은사막은 국내 게임사가 글로벌 콘솔·PC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지를 가늠할 상징적인 작품”이라며 “첫날 판매 성적은 기대에 부합했지만 장기 흥행 여부는 이용자들이 지적인 조작감과 편의성 문제를 얼마나 빠르게 보완하느냐에 달렸다”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metro

## SKT, 광화문 트래픽 2배에도 안정적 운영

AI 네트워크 시스템 ‘A-One’ 첫 적용  
과부하 되던 자동 자원 재배치 수행

SK텔레콤은 21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대형 K팝 공연에서 인공지능(AI) 기반 네트워크 운영을 통해 통신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연 전후 3시간(오후 7시~10시) 동안 해당 지역의 모바일 데이터 사용량은 총 12.15TB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주말 같은 시간대(5.87TB) 대비 약 2배 수준이다.

이날 트래픽은 광화문광장, 청계광장, 서울광장 일대에 집중됐으며, 도심 밀집 환경 특성상 네트워크 부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 분석 결과 20대가 전체 데이터 사용량의 3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30대 24%, 40대 22%, 50대 이상 18%, 10대 6% 순으로 집계됐다. 성별로는 남성은 다운로드, 여성은 업로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통신 상황을 점검 중인 SKT 직원들의 모습.

/SKT

콘텐츠 소비 방식 차이도 확인됐다. 외국인 이용자 수 역시 직전 주말 대비 약 23% 증가했다.

SK텔레콤은 이번 행사에서 AI 기반 네트워크 운영 시스템 ‘A-One’을 처음 적용했다. 해당 시스템은 트래픽을 5분 단위, 50m 단위로 실시간 분석해 과부하 발생 시 트래픽 분산과 자원 재배치를 자동으로 수행한다.

이와 함께 임시 기지국 등 추가 설비

를 구축해 네트워크 용량을 확대하고, 외국인 로밍 이용자 증가에 대비한 사전 대응도 진행했다. 행사 당일에는 SK텔레콤과 관계사 인력 약 200명이 현장 대응에 투입됐다.

SK텔레콤은 이번 사례를 통해 초고밀집 환경에서도 AI 기반 네트워크 운영의 실효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김서현 기자 seoh@

## LGU+, 자율네트워크로 통신 안정성 확보

광화문서 실시간 트래픽 자동 분산

LG유플러스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대규모 공연 현장에서 자율네트워크 기반 대응 체계를 통해 통신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했다고 22일 밝혔다.

행사 당일 광화문광장과 세종대로, 서울시청 일대 접속 단말 수는 공연이 시작된 오후 8시 기준 직전 주말 대비 약 두 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는 행사에 앞서 이동기지와 임시 중계기 등을 배치하고 기존 기지국 용량 점검과 사전 최적화 작업을 진행했다.

특히 자율네트워크 기술을 적용해 트래픽을 실시간으로 관리했다. 특정 기지국에 트래픽이 집중되면 출력과 연결 유시 시간 등 운영 파라미터를 자동 조정해 인근 기지국으로 분산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과부하 구간을 빠르게 제



광화문광장 인근에 설치된 LG유플러스의 이동기국.

/LG유플러스

어하고 네트워크 혼잡과 품질 저하를 최소화했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현장 인력과 상황실도 동시에 운영됐다. 현장에서는 설비 상태를 점검하고, 마국 네트워크 상황실에서는 트래픽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대응했다.

LG유플러스는 대규모 집객 환경에서 자율네트워크 기반 사전 예측과 실시간 제어의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서현 기자

## 마이크로소프트, 윈도11 안정성·품질 손질

내부 테스트·검증 절차 강화

마이크로소프트(MS)가 최근 수년간 지적된 ‘윈도11’의 안정성과 업데이트 품질 문제를 대대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회사는 22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향후 윈도 개발의 최우선 과제를 ‘품질’에 두겠다고 공개했다.

이번 방침은 윈도11 업데이트 이후

부팅 불가와 시스템 정지, 앱 충돌, 로그인 오류, 저장장치 접근 불가 등 각종 문제가 반복된 데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특히 올해 들어서도 블루투스나 GPU 오류, 로그인 문제 등이 이어지면서 운영체제 신뢰도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업데이트 오류와 예기치 않은 재부팅, 설치 실패를 줄이

기 위해 내부 테스트와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단계적 배포와 실시간 피드백 수집 체계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자가 업데이트 설치 시점을 보다 직접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제어권도 넓힌다는 방침이다.

성능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메모리 8GB 환경에서도 메모리 사용량을 줄여 저사양 기기의 앱 실행 속도와 응답성을 높이고 체감 성능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최빛나 기자

## KT, AI 논문 148건 중 49건 학회 등재

실전형 AI 경쟁력 강화

KT가 인공지능(AI) 연구 성과를 실제 서비스에 적용하며 기술과 사업을 연결하는 실전형 AI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단순한 연구 성과 축적을 넘어 주요 AI 모델과 플랫폼에 반영했다.

22일 KT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5년간 AI 분야 논문을 총 148건 발표했다. 이 가운데 49건은 글로벌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CVPR, EMNLP 등 학회에 등재됐다.

특히 KT는 서울대, 카이스트, 고려

대 등 주요 대학과 공동연구센터를 구성하고, 각 대학 전문 연구 역량과 KT 기술·사업 경험을 결합한 공동 연구를 수행 중이다. 글로벌 수준의 기술 확보를 위한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와의 협력도 지속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KT는 단순한 기술 교류를 넘어 연구 기획 단계부터 성과 검증, 사업 적용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연구 결과를 실제 서비스와 사업으로 이어가는 구조다.

/김서현 기자

# “주식시장 거래시간 연장, 9월14일 시행… 걸림돌 없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증권시장 70주년 ‘불스 레이스’ 참석

증권가 우려엔 ‘준비기간 충분’ 일축  
시장점유율 90% 이상 참여 전망  
넥스트레이드와 동등 경쟁환경 필요  
증시엔 과열보다 속도조절 주문



21일 한국거래소가 개최한 ‘제17회 금융투자인 마라톤 대회(불스 레이스)’에서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황성업 금융투자협회 회장, 김학수 넥스트레이드 대표와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이 달리고 있다. /한국거래소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주식시장 거래시간 연장 시행 시점을 9월 14일로 확정하며 추가 연기 가능성을 일축했다. 증권업계 일각에서 전산·노무 부담을 이유로 일정 재조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준비 기간은 충분히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정 이사장은 21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제17회 금융투자인 마라톤 대회(불스 레이스)’에서 기자들과 만나 “9월 14일까지 기간을 더 연장해준다면 상당수 증권사가 문제가 없다고 의견을 개진했다”며 “시행하는 데 걸림돌은 없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당초 6월 말 거래시간 연장을 추진했으나, 증권사들의 전산 개발 부담 등을 반영해 시행 시점을 약 두 달 반 늦춘 바 있다. 오는 9월 14일부터

는 기존 오전 9시~오후 3시30분 정규장 외에 프리마켓(오전 7시~7시50분)과 애프터마켓(오후 4시~8시)이 추가로 운영될 예정이다.

전날 국회 간담회에서 일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가 9월 시행도 어렵다는 의견을 낸 데 대해서도 “시뮬레이션 기간도 당초 3개월 반에서 5개월 반으로 늘어났다”며 “그 정도면 준비 기간은 충분한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이어 “대형사뿐 아니라 중형 증권사까지도 (거래시간 연

장) 문제 없다는 데 합의했다”며 “시장 점유율 기준 90% 이상이 거래시간 연장한 시장에 참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거래시간 연장의 필요성도 분명히 했다. 그는 “전산 담당자 입장에서는 준비 기간이 길수록 좋겠지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거래시간이 길면 좋을 것”이라며 이는 글로벌 스탠다드이기도 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글로벌 자본시장에서는 미국 나스닥은 내년 하반기부터 24시간 거래를 시작할

예정이며, 뉴욕증권거래소(NYSE) 아카(Arca)가 22시간 거래 연장을 승인받은 상태다. 이밖에도 영국·독일·홍콩 등에서도 거래시간 확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정 이사장은 향후 넥스트레이드와의 경쟁과 관련해 “동등 경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초기에는 신생 거래소 보호가 필요했지만 현재는 시장 점유율이 35~40%까지 확대됐다”며 “거래시간과 수수료 측면에서 동일한 조건이 마련돼야 실질적인 경쟁이 가능하다”고 말하며 “경쟁이라는 건 공정이 확보된 단계 이후의 이야기”라고 언급했다. 이어 “넥스트레이드가 거래시간 연장에 반대하지 않는 것도, 시장 내 입지를 확보했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최근 증시 상승 흐름에 대해서는 속도 조절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6000을 넘어 7000도 가능하지만 빠르게 올라가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지수를 다지면서 가자 오버페이스하면 탈진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이날 행사는 증권시장 개장 70주년을 기념해 ‘거침없는 도전! 새로운 미래!’를 슬로건으로 열렸다. 마라톤(5·10km)을 비롯해 기업대항전, 에어바운스 챌린지 등 가족 참여형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됐고 금융투자업계 임직원과 가족 약 7000명이 참여했다. 참가비와 후원금 전액(총 2억 30만원)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을 통해 영등포구와 부산 지역 사회복지시설에 기부됐다.

정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올해는 17년 동안 이어진 대회 중에서 가장 많은 기부금이 모였다”며 “금융투자인 여러분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프리미엄 자본시장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거래소도 자본시장의 앞날을 위해 계속 달려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불스 레이스에 참여한 한 증권사 관계자는 “올해 불스 레이스는 분위기가 예년보다 훨씬 고조된 느낌이다”며 “지난해는 탄핵 정국과 증시 하락, 거래 정지 이슈까지 다소 어수선했지만, 올해는 변동성 속에서도 코스피가 5000선을 지키는 등 시장 분위기가 살아난 상태에서 행사가 열려 한층 더 밝은 모습들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화창한 날씨까지 더해지면서 참여자들의 활기도 높았고, 다이나믹 듀오 공연 등 현장 프로그램도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데 한몫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 국내도 단일종목 2배 레버리지 ETF 나온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유력  
올해 5월께 국내 출시 전망

“이제 삼성전자에 베팅하러 홍콩·미국까지 갈 필요가 없다.” 서학개미들이 환전 비용과 세금 부담을 감수하며 해외 증시에서나 찾았던 ‘단일 종목 2배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올 5월경 국내 시장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삼성전자·SK하이닉스 2개 종목으로 출발할 걸로 보인다. 여기에 초우량 코스닥 종목만 모아놓은 코스닥 프리미엄 지수 연계 ETF와 완전 액티브 ETF 등도 줄줄이 출격을 앞두고 있어 국내 ETF 판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단일종목의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ETF 상품이 이르면 5월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이달 안에 기초자산 요건 등 상품구조 관련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금융투자업 규정 시행세칙을 공개할 예정이다. 시가총액·거래량 관련 기준과 해지(위험분산)가 원활하도록 선물종목 관련 요건도 포함된다.

대상 종목은 금융당국이 밝힌 ‘국내 우량주식’ 범주에 해당하는 종목으로,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완전 액티브 ETF와 코스닥 프리미엄 지수 연계 ETF도 출격을 대기 중이다.

완전 액티브 ETF는 기초지수와의 상관관계수가 최소 0.7이 돼야 한다는 지수연동 제약을 전혀 받지 않는 상품이다. 펀드매니저의 운용 재량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돼 일반 공모펀드가 상장된 형태에 가깝다.

코스닥 프리미엄 지수 연계 ETF는 정부의 코스닥시장 구조 개편과 맞물려 있다.

정부는 코스닥시장에 승강제를 도입해 프리미엄·스탠다드 등 2개 리그로 개

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종프리미엄 리그의 최상위 우량주만 추려 지수화하고 이를 추종하는 ETF 상품을 내놓겠다는 구상이다.

코스피 대형주보다는 높은 수익률을 내면서 시총·거래량·주가 흐름 등은 안정적인 초우량 종목을 선별해 기존 코스닥150을 뛰어넘는 매력적인 지수를 개발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금융당국은 완전 액티브 ETF는 상반기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를, 코스닥 프리미엄 지수 연계 ETF는 내년 초 상품 출시를 각각 목표로 삼고 있다.

내년까지 신형 ETF가 순차 출시돼 자금 유입되면 국내 ETF 시장의 성장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국내 ETF 순자산 총합은 지난 20일 기준 약 381조3300억원으로 연초(297조1400억원)보다 30% 가까이 늘어났다.

/허정윤 기자



6일 한국거래소 서울사무 홍보관에서 2025년 상장주관업무 수행한 기업금융(IB)을 평가해 우수IB를 선정하고 시상했다. /IBK투자증권

## 거래소, 미래에셋증권 ‘통합 최우수 IB’ 선정

코스피 KB증권, 코스닥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이 지난해 ‘최우수 투자은행(IB)’으로 선정됐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25년 상장 주관 업무를 수행한 증권사를 평가해 우수 IB를 선정하는 시상식에서 ‘통합 최우수 IB’ 첫 수상자로 미래에셋증권이 이름을 올렸다. 기존에는 각 시장별로 분리 운영하던 IB시장을 올해부터는 통합해 증권시장을 대표하는 ‘통합 최우수 IB’를 새로 선정했다. 시장별 우수 IB로는 유가증권시장 부

문에서 KB증권, 코스닥시장 부문에서 삼성증권, 코넥스시장 부문에서 IBK투자증권이 각각 선정됐다.

거래소는 증권시장 기여도, 상장 기업의 우수성, IB 업무수행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은 “앞으로도 부실기업 퇴출 기준을 강화하고 혁신 기술 기업 상장을 확대해 한국 자본시장이 ‘글로벌 프리미엄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 쪼그라든 스펙시장… 상장 첫날은 ‘날뛰기’

IPO 비중 5.7%까지 축소  
합병 성공률 38%대로 급락

스팩(SPAC) 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되는 가운데 상장 첫날 단기 투기성 거래는 오히려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합병 이후 주가 역시 하락세를 보이며 투자자 주의가 요구되는 구조적 특징도 재확인됐다.

2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스팩 시장 투자 백서’에 따르면 2025년 스펙 신규상장은 25건, 공모금액 2704억원으로 전

년 대비 각각 37.5%, 32.2% 감소했다. 전체 IPO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7%까지 낮아지며 최근 2~3년간 축소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합병 성과도 악화됐다. 지난해 스펙 합병 성공 건수는 15건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에 그쳤지만, 상장폐지는 24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이에 따라 합병 성공률은 68.0%에서 38.5%로 급락했다. 합병 지연으로 스펙의 ‘고연령화’ 현상도 심화되는 모습이다.

반면 단기 주가 흐름은 투기적 양상을

보였다. 지난해 상장된 스펙은 공모가 2000원에서 시작해 장중 평균 4067원까지 급등한 뒤 증가 기준 2227원으로 급락하는 패턴을 반복했다. 사업 실체가 없는 ‘셸(shell)’ 구조를 감안하면 공모가 수준에서 형성돼야 할 가격이 비이성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합병 이후에도 주가 흐름은 부진했다. 합병 완료 후 3개월이 지난 종목의 평균 주가 변동률은 -5.2%였으며, 9개월 기준으로는 -26.6%까지 하락폭이 확대됐다. 최근 5년 평균으로도 기간이 길어질수록 하락폭과 하락 종목 비중이 함께 증가하는 경향이 확인됐다.

/허정윤 기자

## KB운용, RISE ETF ‘반.바.지.로’ 캠페인

반도체·바이오 등 핵심섹터 투자 제안

KB자산운용은 봄 시즌을 맞아 자사 상장지수펀드(ETF) 브랜드 ‘RISE ETF’가 국내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핵심 성장 섹터를 중심으로 한 ‘반.바.지.로’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반.바.지.로’는 반도체, 바이오, 2차전지, 로봇의 앞 글자를 따 만든 신조어다.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4대 성장 섹터를 직

관적으로 표현했다. 계절이 바뀌며 옷차림이 가벼워지듯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역시 핵심 성장주 중심으로 재편하자는 메시지를 담았다. 캠페인 비주얼에는 강렬한 노란색 반바지를 활용해 RISE ETF의 젊고 역동적인 이미지를 강조했다.

KB자산운용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반.바.지.로’ 섹터에 해당하는 RISE ETF 대표 상품 라인업도 함께 제시했다.

/신하은 기자

# “이자 최대 3%p 지원”... 노동자 생활안정자금 대폭 확대

고용부-근로복지공, 봄철 맞아 새 학기·결혼 등 금융 부담 완화  
학령기 자녀 가구까지 대상 포함  
노부모양비·장례비 항목 신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용자 사업'을 대폭 확대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새 학기·결혼 시즌 등 지출이 집중되는 봄철을 맞아 노동자의 실질적인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다.

이차보전 용자사업은 노동자가 금융기관에서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발생하는 이자 중 최대 3%포인트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연 6% 금리로 2000만 원을 대출받으면 정부가 절반 수준인 3% 이자를 대신 부담해, 첫째에만 약 60만 원의 이자 절감 효



Gemini에 의해 생성된 새 학기와 결혼 등 봄철 집중되는 지출 현상을 묘사한 일러스트 이미지.

과가 발생한다.

특히 이번 개편에서는 지원 대상이 크게 넓어졌다. 기존 '7세 미만'이던 자녀 양육비 지원 기준을 '18세 미만'으로 확대해 학령기 자녀를 둔 가구까지 포함했

다. 교육비 부담이 큰 가계의 체감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혼례비와 자녀양육비 중심이던 지원 항목에 노부모양비와 장례비가 새롭게 추가되면서, 생애주기 전반의 필

수 지출을 포괄하는 구조로 바뀌었다.

지원 한도는 혼례비·자녀양육비·노부모양비 최대 2000만 원, 장례비 최대 1000만 원으로 확대하였으며, 상환 방식은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방식이다.

신청 요건도 완화됐다. 혼례비의 경우 기존 혼인신고 후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신청 기간이 늘어나 제도 활용 폭이 확대됐다. 장례비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노동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3개월 이상 1인 자영업자로,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약 535만 원 수준) 이하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이 단순한 금융 지원을 넘어, 취약계층 노동자의 생활안정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

고 있다.

서명석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확대된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 노동자의 가계경제 부담이 완화될 바란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고금리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느끼는 이자 부담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공단은 앞으로도 일하는 노동자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실질적인 금융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을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노동자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용자 신청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넷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공단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정상 경제외교 의제, 기업이 직접 제안한다

산업부 '기업 헬프 데스크' 운영  
정상 경제외교 실효성 높여

산업통상부가 정상 경제외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 의견을 상시 수렴하는 창구를 마련했다.

산업부는 23일부터 정상 경제외교 관련 기업 의견을 수시로 접수하는 '기업 헬프 데스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상외교는 그간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과 수출, 수출 확대는 물론 현지 애로 해소의 계기로 활용돼 왔다. 다만 사전 준비 과정에서 기업 의견 반영이 제한적

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보다 체계적인 의견수렴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산업부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경제외교 활용포털' 내에 '기업 헬프 데스크'를 신설했다.

해당 창구를 통해 기업들은 정상회담에서 논의가 필요한 의제나 애로사항을 직접 제안할 수 있으며, 프로젝트 수주 가능성이 높은 국가 방문도 건의할 수 있다.

산업부와 관계기관은 접수된 의견을 종합 검토·협의해 향후 정상 경제외교 일정과 의제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포털 내 관련회원 인증을 통해

의견 제출이 가능하며, 향후 국가 정보 보안지침에 따른 추가 보안을 거쳐 간편 인증 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헬프 데스크 운영과 함께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주요 경제단체와 협력해 정기적으로 기업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배준형 산업부 통상협력국장은 “기업이 헬프 데스크를 통해 정상회담 의제와 국가 방문을 제안하면,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경제외교 성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 산업부, '3기 소부장 특화단지' 공모 개시

사전 준비부터 지방정부 참여 강화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의 지역 거점 육성을 위한 3기 특화단지 지정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산업통상부는 23일 '3기 소부장 특화단지' 신규 지정을 위한 공모를 시작했다. 이번 사업은 2021년 1기, 2023년 2기에 이은 세 번째 지정으로, 지역 기반 공급망 협력 생태계 확대가 목표다.

소부장 특화단지는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연구기관 등을 한데 모아 집적화함으로써 안정적인 공급망과 장기적인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기존 1·2기 특화단지는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전략 산업 중심으로 조성됐으며, 약 11조5000억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유치하고 15개 핵심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추진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3기 지정은 사전 준비 단계부터 지방정부 참여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산업부는 공모에 앞서 지난 1월부터 약 두 달간 '예비검토제'를 도입해 총 12개 시·도의 21개 사업계획을 점검했다. 이를 통해 앵커기업 확보, 타깃 품목 설정, 투자계획 보완 등 핵심 요소에 대한 컨설팅이 이뤄졌다.

공모 접수는 3월 23일부터 4월 22일까지 진행되며, 이후 서류검토와 현장실사, 발표평가 등을 거쳐 7월 중 최종 지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최종 선정은 민간 평가위원회 평가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된다.

산업부는 4월 1일 사업설명회를 열고 예비검토 과정에서 도출된 주요 보완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공유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해수부  
오늘부터 바다내비  
단말기 보급 시행

비용 50%, 최대 250만원 지원

해양수산부가 이달 23일부터 '바다내비 단말기 8차 보급사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통해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지원한다.

바다내비는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을 활용해 우리 연안으로부터 최대 100km 떨어진 바다 위에서도 전자해도, 주변 선박 정보, 충돌·좌초 경보, 해양안전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선박에 제공하는 서비스다.

지능형해상교통정보법에 따라 2021년 1월30일 이후 건조되거나 수입된 선박은 바다내비 단말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해수부는 바다내비 서비스 이용 기반 확대 및 선주 비용부담 절감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보급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시행되는 8차 보급사업에서는 어선과 일반선박을 대상으로 단말기 구매와 설치 비용의 50%를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 농식품부, 여성농업인 지위 향상 실현

제6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공동경영주 등록 인센티브 등 검토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이 강화된다. 정부는 공동경영주 등록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지역농협 내 여성 이사 비중을 확대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의 '제6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2026~2030)'을 수립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형식적 참여 확대에서 실질적 지위 향상 ▲개별 사업 중심에서 정책 거버넌스 구축 ▲보호·복지 중심 지원에서 핵심 경제주체로의 성장 지원 ▲돌봄·건강 공백 해소를 위한 농촌 맞춤형 지원 강화로 정책 방향을 전환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농촌 여성의 법적·사회적 지위 신장과 성평등 농촌을 실현하기 위한 구상을 기본계획에 담았다.

이들의 대표성 강화를 위해 '공동경영주' 등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농협 이사회 성별규정 신설 등을 통해 지역농협 여성 이사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마을시장 선출의 경우 성평등 방식(1세대 1표→1인 1표)의 확산을 유도한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2026년 1차 여성농업인 육성 정책심의회. /농식품부

또 농촌지역 성평등 수준을 점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농촌 특화형 성평등 교육을 확대·강화한다. 농식품부 소관 사업 참여자와 농업 분야 고용주·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성평등 교육을 확대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농촌 여성 정책 거버넌스 구축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농촌 여성정책과 신설을 계기로 지방정부의 전담부서·인력 확보 등 여성농업인 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농촌의 핵심 경제 주체로서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농업·돌봄과 병행할 수 있는 시간탄력적 일자리를 발굴·확산하고 가족경영협약 활성화를 통해 여성농업인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구축한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 남부발전, 부산 AI·ICT 中 企 판로 확대

베트남 K-디지털 혁신 시장개척단

한국남부발전이 부산 지역 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 중소기업의 베트남 진출 지원에 나선다. 기존 호치민 중심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하노이까지 판로를 확대해 수출시장 다변화를 본격 추진한다.

22일 남부발전에 따르면, '2026 베트남 K-디지털 혁신 시장개척단'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이번 사업은 디지털 기반 유망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부산벤처기업협회와 함께 2025년부터 협업해 온 프로그램이다.

베트남은 정부 주도의 디지털 경제 육성 정책에 힘입어 아세안 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디지털 시장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지난해 부산 지역 ICT 기업 10개사는 호치민에서 총 560만 달러 규모의 수출계약을 추진하고 9건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남부발전은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올해 시장개척단 파견 지역을 하노이까지 확대한다. 파견 일정은 오는 5월 26일부터 31일까지다.

참여 기업에는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현지 진출 전략 세미나 ▲한·베 ICT Meet-up Day ▲현지 유관기관 방문 및 네트워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올해는 전년 대비 두 배 수준인 1000만 달러 규모 성과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강태길 남부발전 자원전략처장은 “최근 중동 전쟁으로 수출기업의 경영 악재가 커진 만큼 수출시장 다변화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남부발전의 네트워크와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ICT 기업이 거대 신성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시장개척단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4월 1일까지 부산벤처기업협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AI·데이터·연계플랫폼 초월기업

# Leading AX Platform

온프레미스 & 클라우드 하이브리드형 시장 점유율 1등 기업



# 중소기업 AI 체질 개선 돕는다... '경북형 상생 모델' 가동

K-경북형 AI 동반성장 프로젝트 사업모델 발굴·공장 고도화 등 지원  
앵커기업-협력 중기 격차해소 초점



경북도가 앵커기업의 우수물량과 중소기업의 AI 기술 도입을 연계하는 'K-경북형 AI 동반성장 주력산업 육성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경북도는 지난주 구미 세아메카닉스에서 행정·기술·금융 분야 유관기관과 함께 협업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모델 발굴부터 AI 도입, 공장 고도화까지 지원하는 통합 정책 플랫폼 구축에 나섰다.

경북 주력산업인 자동차 분야는 AI 전환과 해외 생산 확대, 통상 환경 변화 등으로 급격한 구조 변화에 직면해 있다. 이에 도는 자동차 산업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해 AI 기반 동반성장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철강, 반도체 등 10대 주력산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앵커기업과 협력 중소기업 간 격차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자체적으로 AI 전환이 가능하지만, 2·3차 협력 중소기업은 투자 부담과 인력 부족으로 도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경북도는 앵커기업 우수물량과 중소기업 AI 도입을 연계하고, 피지컬 AI 공동연구개발과 품질관리, 자금 지원, 인력 양성, 마케팅까지 통합 지원하는 동반성장 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기존 스마트공장 지원이 개별기업 중심이었다면, 이번 사업은 앵커기업이 협력사의 AI 도입을 견인하고 유관기관이 이를 뒷받침하는 상생 구조로

정책 방향을 전환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이 금융을 지원하고, 경북테크노파크와 로봇융합 연구원,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이 기술개발을 맡는다. 금융공대와 구미대, 경운대는 전문인력 양성을 담당하며, 경북경제진흥원과 대구경북중소벤처기업청은 판로와 현장 지원을 맡는다.

경북도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총 45억 원을 투입해 제조업 AI 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자동차 산업을 시작으로 10대 주력산업별 앵커기업-

협력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AI와 로봇 도입을 통해 중소기업 100개를 성장형 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와 연계해 AI 전문인력 1000명을 양성하고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실무형 인재를 공급한다.

사업은 기획, 협력, 전환, 도약, 확장 등 5단계 고도화 로드맵에 따라 추진된다. 단계별로 수요 분석과 네트워크 구축, 데이터 표준화와 AI 도입, 공동연구개발과 사업화, 스마트공장 고도화를 진행해 자립형 상생 생태계를 구축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중소 협력업체는 단독으로 AI 전환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경북도가 앵커기업과 중소기업을 연결해 자금·기술·인력·마케팅을 통합 지원하는 동반성장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를 시작으로 철강과 반도체 등으로 확대해 AI 시대 동반성장 모델을 경북이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metroseoul.co.kr

## 지역 이모저모

### 경남도 무성영화 번사공연 10개군 확대

경남도가 문화 소외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무성영화 번사 공연을 도내 10개 군으로 넓힌다.

도는 '어르신 영화관 나들이 지원사업'의 하나로 20일 거창군 문화센터를 시작으로 5월까지 군 지역 전반에 번사 공연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번사 공연은 소리 없는 무성영화에 번사가 직접 해설과 연기를 더하는 공연 형식이다. 지난해 함안군 시범 운영에서 호응을 얻은 데 힘입어 올해 전면 확대에 나섰다.

/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 목포시

#### '춤추는 바다분수' 내달 재개

목포시는 동절기 휴지기간 시설물 관리와 보강을 위해 중지했던 '목포 춤추는 바다분수'가 새롭게 단장하고 오는 4월 1일부터 공연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2026년 첫 공연은 케데헌 OST와 악동뮤지션 히트곡, K-트롯 등 인기곡을 레이저와 분수음악 연출곡으로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바다분수 공연에서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 영화 속 다양한 컬러를 바다분수 노즐 조명과 레이저 색감에 녹여내어 생동감과 역동적인 모습을 더하고 악동뮤지션 등의 감미로운 음악으로 감성을 더해 관람객을 맞이할 예정이다.

/목포(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 경북교육청

#### 경북소년체전, 40개 종목 경쟁

경북교육청은 '2026년 경상북도소년체육대회'가 지난 16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도내 10개 시군, 종목별 경기장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출전 선수 선발전을 겸해 열리며, 도내 22개 시군 초·중학생 선수 2459명이 참가해 경쟁을 펼치고 있다.

경기는 초등부와 중등부로 나뉘어 육상·수영·축구·배구·탁구 등 주요 종목을 포함해 40여 개 종목에서 진행된다. 특히 가장 많은 인원이 참가하는 육상 경기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경산생활체육공원 시민운동장에서 열릴 예정으로, 이번 대회의 주요 관전 요소로 꼽힌다.

/경북=김준한 기자

### 경주시

#### 시내버스 어린이·청소년 무료

오는 4월 1일부터 경주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어린이·청소년 요금은 전면 무료화된다.

경주시는 '경주시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됨에 따라, 만 6세 이상 18세 이하 어린이·청소년은 교통카드를 이용해 경주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제도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며, 별도의 전용 카드 발급 없이 기존 어린이·청소년 교통카드를 그대로 사용하면 요금이 전액 지원된다.

/경주(경북)=김진곤 기자

## 청송, 150억 들여 통합보건체계 구축

### 의료서비스 접근성 개선 건강관리 체계 고도화

청송군이 군민 체감형 보건 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해 대규모 투자에 나선다. 군은 2026년 150억 원을 투입해 진료 기반을 강화하고 예방과 돌봄을 연계한 통합건강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이번 계획은 의료서비스 접근성 개선과 건강관리 체계 고도화를 목표로 추진된다. 진료 기능 강화와 예방 중심 정책 확대를 동시에 추진해 지역 보건 의료 수준을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군은 공중보건의사 감소에 대응해 필수 의료인력 확보에 집중한다. 전문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봉직의사 2명을 채용하고 보건진료소 기능강화사업을 통해 1차 의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진료환경 개선도 병행된다. 노후 보

건의료시설 개보수와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한다. 체외충격과 치료기와 백신냉장고 등 의료장비를 확충해 진료 품질 향상도 추진한다.

2026년에는 의료를 넘어 돌봄과 재활까지 확대하는 신규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재택의료지원센터를 운영해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에게 방문진료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의료취약지역 건강허브 조성사업을 통해 AI 기반 치매돌봄과 한의약건강증진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도 새롭게 추진된다. 로봇재활운동실 운영과 방문 재활서비스, 보조기기 대여를 통해 장애인 기능 회복을 지원한다. 노인 방문 구강관리와 치매환자 실종예방 교육도 병행해 돌봄 사각지대를 줄일 계획이다.

/청송(경북)=손기성 기자 gbnews8082@

## 포항시, 상수도 원격검침 AI 고도화

### 실시간으로 수돗물 사용량 확인

포항시가 시민 편의 향상과 수도 행정 효율화를 위해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상수도 원격검침시스템 AI 고도화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이달 관련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연내 사업을 완료한 뒤 시범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기존에는 검침원이 각 가정을 방문해 사용량을 확인했지만, 원격검침 시스템은 디지털 계량기와 통신 장비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수돗물 사용량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앞서 시는 디지털 계량기 이용자를 대상으로 일별 사용량 조회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전체 계량기 6만 7000여 기 가운데 약 73%가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된 상태다. 2028년까지 전면 디지털화를 목표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포항(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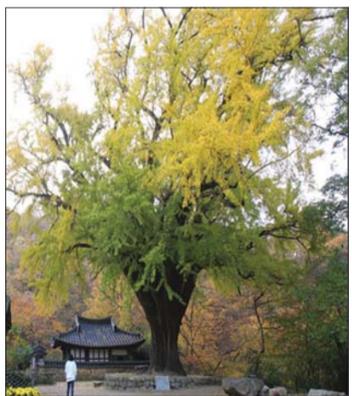
## 영주·경주 은행나무 문화자산 지정 추진

### 역사성·상징성 가진 산림 자원

경북도는 최근 관객 1300만 명을 돌파하며 주목받고 있는 영화 '왕과 나는 남자'와 연관된 역사 자원을 활용해 영주와 경주의 은행나무 2곳을 '국가산림 문화자산'으로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

이번 지정 대상은 단종과 금성대군의 이야기가 전해지는 영주 내죽리 은행나무와 경주 왕신리 윤곡서원 은행나무로, 역사성과 상징성을 동시에 갖춘 산림 자원이다.

국가산림문화자산은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제도로, 산림과 관련된 유·무형 자산 가운데 생태적·경관적·정서적 가



경주 왕신리 윤곡서원 은행나무 전경.

치가 높은 대상이 포함된다.

/경북=김준한 기자

## 울산시, 석유화학산업 재도약 전략 모색

### '화학의 날' 행사 개최

울산시가 지난 20일 울산테크노파크 대강당에서 '제20회 울산 화학의 날' 기념식을 열고, 석유화학산업 대전환을 위한 기술 세미나를 병행 진행했다.

올해로 20회를 맞은 이 행사는 울산 화학산업의 발전을 돌아보고,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 환경에 대응할 경쟁력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남교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산업통상부, 울산시의회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에서는 울산 화학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10명에게 표창이 수

여됐다. 산업통상부 장관 표창 5명, 울산시장 표창 5명이다.

기념식에 이어 '석유화학산업 대전환 기술 세미나'가 진행됐다. 카이스트 최재식 교수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제조혁신 방안,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라호원 본부장이 가스화 기반 자원순환 기술을 통한 탄소 중립 대응 전략을 각각 소개했다. 세종대학교 김용석 교수는 고부가 화학소재 개발 전략을 발표하며 석유화학산업의 미래 성장 방향을 제시했다.

울산 화학의 날은 1968년 3월 22일 석유화학단지 기공을 기념해 지정됐다.

/울산=박기선 기자 metrobusan7@

# 방탈출로 비법서 찾고 굿즈 마무리... 체험형 마케팅 승부

## ‘새로운중앙박물관’ 팝업 스토어

박물관 콘셉트에 브랜드 서사 녹여 전시 후 비법서 찾는 방탈출 운영 굿즈·가차·디저트 체험 마련 제품 정보도 게임 단서로 전달 성수 2030 겨냥 몰입형 점점 강화

서울 성동구 연무장 13길 11, 길을 걷다보면 민트빛 기와지붕과 여우 형상이 시선을 끄는 이색 건물을 발견할 수 있다. 롯데칠성음료가 선보인 ‘새로운중앙박물관’ 팝업스토어다. 외관부터 한국적인 미감을 현대적으로 풀어낸 이 공간은 단순한 주류 팝업을 넘어 ‘국립중앙박물관’을 패러디한 설정으로 호기심을 자극한다.

입구에 들어서면 도슨트의 설명과 함께 ‘새로’의 탄생과 변화 과정이 벽에 연도별로 펼쳐져 있다.

실제 박물관을 연상시키는 연출에 관람객들은 자연스럽게 전시를 따라 이동하게 된다. 설명을 ‘듣는’ 것이 아니라, 공간을 ‘걷는’ 과정에서 브랜드 스토리를 체험하게 되는 구조다.

전시 구간에서는 익숙한 전통 유물들이 ‘새로’의 세계관으로 재해석돼 눈길을 끈다. 청자, 고서, 수막새 등은 민트 톤으로 통일돼 브랜드 색을 강조하면서



새로운중앙박물관 팝업 전경.

도 곳곳에 배치된 캐릭터 요소가 유쾌한 반전을 더한다. 관람객들은 전시물 앞에서 사진을 찍거나 소원을 비는 체험을 하며 자연스럽게 머무는 시간을 늘린다. 공간 자체가 포토존 역할을 하는 셈이다.

팝업의 클라이맥스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새로 비법서’를 공개하는 존에 들어서면서 분위기는 급격히 전환된다. 사라져버린 새로 비법서를 찾아야 하는 방탈출이 시작된 것이다. 어두운 조명과 레이저가 교차하는 방탈출 구간이 시작

되며 ‘천년의 비법서’를 되찾는 미션이 본격적으로 펼쳐진다. 관람객들은 단서를 찾고 퍼즐을 풀어야 다음 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다. 현장에서는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풀며 웃음을 터뜨리는 모습이 이어졌다. 단순 관람을 넘어 ‘참여’가 중심이 되는 지점이다.

이 과정에서 제품 정보는 자연스럽게 스며든다. 국내산 쌀 100% 증류주 첨가, 아미노산 5종, 15.7도 도수 등 리뉴얼된 ‘새로’의 특징이 비밀번호나 단서 형태로 배치돼 있다. 정보를 나열하기보



새로 소주 팝업스토어 ‘새로운중앙박물관’의 방탈출 체험이 진행되는 공간.

다 게임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인지하도록 설계한 점이 특징이다.

방탈출을 마치고 나오면 밝은 분위기의 굿즈존이 이어진다. 나만의 키캡 키링을 제작하거나 미니어처 병을 꾸미는 체험이 마련돼 방문객들이 직접 브랜드를 ‘완성’하는 경험을 제공한다. 한쪽에서는 가차머신을 돌리며 굿즈를 뽑을 수도 있다. 가차머신에 사용되는 코인은 전시를 관람하면서 도장을 찍으면 받을 수 있다.

마지막 동선은 F&B 공간이다. 카페

‘아우프글렛’과 협업한 디저트가 전시의 ‘엔딩’을 장식한다. ‘천년의 비법서’를 형상화한 디저트와 컵테일은 단순 먹거리를 넘어, 앞서 경험한 서사를 미각으로 마무리하는 장치다. 체험·전시·미식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이번 팝업은 ‘잃어버린 비법서를 찾아라’는 하나의 이야기 안에 모든 콘텐츠를 묶어낸 점이 핵심이다. 단순 제품 홍보를 넘어 브랜드 세계관을 공간 전체로 확장한 것이다. 실제로 ‘새로’는 그간 한국적 스토리와 캐릭터를 결합한 마케팅을 이어왔고, 이번에는 이를 ‘천년 서사’로 한층 강화했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제품 자체를 강조하기보다 소비자가 브랜드 경험을 직접 체험하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 전략”이라며 “또 성수동은 팝업스토어를 찾는 20~30대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인 만큼 자연스러운 고객 유입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새로운중앙박물관’은 오는 4월 5일까지 운영된다. ‘보고 끝나는’ 전시가 아니라, 풀고 만들고 맛보는 과정을 통해 브랜드를 각인시키는 이번 팝업이 리뉴얼된 ‘새로’의 인지도를 어디까지 끌어올릴지 주목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 현대백화점, ‘파리 식탁’ 들여온다

## 佛 봉마르셰 식품관과 맞손 아시아 첫 협업... 400종 판매 전시·체험형 테마 행사도 추진

현대백화점이 글로벌 럭셔리를 대표하는 세계 최초의 백화점인 ‘봉마르셰(LeBonMarche)’의 최고급 식품관 ‘라그랑드 에피세리(La Grande Epicerie de Paris)’와 손잡고 미식 콘텐츠 협업에 나선다.

현대백화점은 프랑스 봉마르셰 백화점 식품관인 라그랑드 에피세리와 미식 트렌드 교류 및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라그랑드 에피세리가 아시아 지역 백화점과 글

로벌 파트너십을 맺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협약식은 최근 프랑스 파리 봉마르셰 백화점 VIP 회의실에서 정지영 현대백화점 사장, 질 로드리크(Giles Roderick) 라그랑드 에피세리 대표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양사는 이번 협약에 따라 ▲온·오프라인 판매 채널 구축 ▲미식 콘텐츠 활용 공동 마케팅 등 실질적 협업을 진행한다. 현대백화점은 유럽을 대표하는 백화점과 시너지를 통해 고객들에게 글로벌 미식 트렌드를 소개하고, 차별화된 식문화 경험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현대백화점은 라그랑드 에피세리가 프랑스 각 지역 미식 장인들과 협업해

선보인 올리브유·잼·소스 등 자체 브랜드(PB) 상품 300여 종을 비롯해 국내 소비자에게 인기가 높지만 해외 직구로만 구매할 수 있는 현지 식료품 등 총 400여 종을 온라인몰을 통해 선보일 예정이며, 향후 현대백화점 주요 점포 식품관에서도 판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단순 상품 판매를 넘어 미식 콘텐츠 교류에도 나설 계획이다. 양사는 올해 더현대 서울 등 현대백화점 주요 점포에서 프랑스 미식 문화를 소개하는 전시·체험형 테마 행사 진행을 검토하고 있다.

정지영 현대백화점 사장은 “이번 파트너십은 고객에게 새로운 미식 경험을



프랑스 파리 봉마르셰 백화점 VIP 회의실에서 정지영 현대백화점 사장(사진 오른쪽)과 질 로드리크(Giles Roderick) 라그랑드 에피세리 대표(사진 왼쪽)가 미식 트렌드 교류 및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현대백화점그룹

제공하기 위해 유럽과 아시아를 대표하는 두 회사간에 글로벌 유통 트렌드를 교류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프랑스 미식 문화를 비롯한 다양한 글로벌 협업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신세계마켓 1년 성과

매출 30% 증가·신규 고객 확대

프리미엄 장비기의 새로운 기준을 내세운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신세계마켓’이 오픈 1년 만에 매출이 30% 이상 증가했다. 신세계백화점은 오픈 1주년을 맞아 고객 감사 행사를 개최한다.

22일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신세계마켓은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의 매출이 증가했으며, 신규 고객 및 서초·강남 외 고객들도 대거 유치하며 강남점이 국내 최고 백화점의 위상을 수성하는데 큰 힘을 보탤다.

지난 1년간 신세계마켓으로 유입된 신규 고객의 비중은 약 30%로 집계되었고, 서울 외 지역의 고객 비중도 40%를 넘겼다.

신세계마켓은 강남점 식품관 리뉴얼 프로젝트의 세 번째 단계로 서울 소재 백화점 중 최대 규모인 약 600평(약 1980㎡)으로 조성된 슈퍼마켓이다. 신선식품과 프리미엄 가정식 전문관, 그로서리(식료품) 매장 등 세 구역으로 이뤄진 신세계마켓은 일상적인 장비기는 물론 전문 셰프가 쇼핑하기에도 손색없는 구색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세경 기자 seilee@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신세계마켓 전경.

## 세븐일레븐, SNS 화제 ‘버터떡’ 선보

버터 넣은 찹쌀 디저트로 식감 차별화

편의점 세븐일레븐이 새롭고 이색적인 맛을 좇는 잘파세대(Z세대+알파세대)의 디지털 소비 트렌드에 발맞춰 최근 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화제의 디저트 ‘버터떡’ 시리즈를 본격적으로 선보인다.

최근 편의점 먹거리 시장은 소비자들의 트렌드 변화 주기가 급격히 짧아지며 두바이쫄독쿠키, 얼떡젤리, 봄뽕비빔밥, 황치즈칩 등 특목 특는 아이디어 상품들이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세븐일레븐은 이 같은 흥행 돌풍을 이어갈 베스트 상품으로 최근 유투브와



세븐일레븐이 버터떡 시리즈를 선보인다. /세븐일레븐

숯폼 등에서 가장 먹어보고 싶은 디저트로 떠오른 버터떡 시리즈를 오는 25일부터 차례로 출시한다. 버터떡은 찹쌀 반죽에 버터를 넉넉하게 넣어 구워 만든 퓨전 디저트다. /신원선 기자

## 롯데홈쇼핑, 여성 캐주얼 ‘베리에’ 론칭

방송서 5000세트 판매하며 초반 흥행

롯데홈쇼핑이 자체 패션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단독 브랜드 중심의 성장세를 기반으로 신규 여성 캐주얼 브랜드를 선보이며 상품 포트폴리오 확장에 나섰다. 롯데홈쇼핑은 페미닌 캐주얼 브랜드 ‘베리에(Varier)’를 론칭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단독 패션 브랜드 매출이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한 가운데, 최근 확대되는 페미닌룩과 레이어드스타일 수요를 반영한 전략적 행보다.

‘베리에’는 ‘본질을 입는 즐거움, 취향이 머무는 우아함’을 콘셉트로, 소재의

본질과 개인 취향에 초점을 맞춘 디자인을 지향한다. 주요 키워드는 본질(ESSENTIALITY), 즐거움(ENJOYMENT), 취향(PERSONAL TASTE), 절제된 페미닌(REFINED FEMININITY)이다.

이번 봄·여름 시즌에는 니트, 레이스 스커트 등 10여종의 아이템을 선보이며 토탈 패션 브랜드로의 확장을 예고했다. 론칭 초기 반응도 긍정적이다. 지난 14일 패션 프로그램 ‘엘쇼(L.SHOW)’에서 공개된 ‘프릴 후드 재킷’은 일부 상품이 조기 매진됐으며 레이스 램프스커트, 린넨 니트 등 주요 제품을 포함해 약 5000세트가 판매됐다. /신원선 기자

# 글로벌 재생의료 확대... 韓 줄기세포 데이터·표준화 시급

일본, 조건부 승인으로 빠른 상용화  
국내 연구 규제 등 걸림돌 존재  
기술력·제도 정비가 경쟁력 핵심

글로벌 재생의료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도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만 데이터 공백과 표준화 부재 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으며, 이는 향후 글로벌 시장 주도권 확보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거론된다.

22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일본이 유도만능줄기세포(iPSC)를 활용한 치료제를 세계 최초로 공식 승인하면서 글로벌 재생의료 시장 선점이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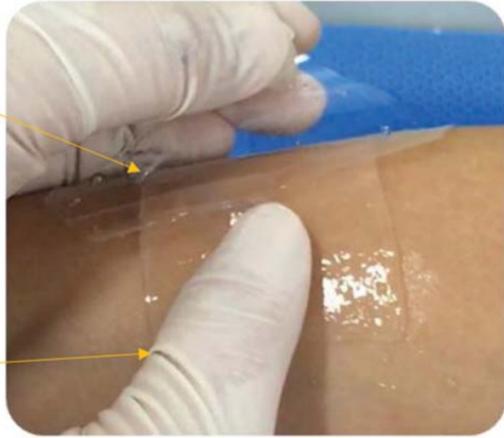
지난 6일 일본 후생노동성은 중증 심부전 치료제 '리하트'와 파킨슨병 치료제 '암체프리'에 대해 제조 판매를 승인한다고 발표했다.

리하트는 환자 유래 유도만능줄기세포를 심장 근육 세포로 분화시킨 뒤 환자 심장에 이식, 심혈관 회복을 촉진하는 기전을 갖췄다.

암체프리는 파킨슨병 환자의 혈액 세포를 채취해 유도만능줄기세포 상태로



알로스스템



/안트로젠

되돌린 뒤, 도파민을 생성하는 전구세포로 유도해 뇌에 이식하는 방식이다. 파킨슨병은 도파민을 생성하는 뉴런 손실로 발생하는 만큼, 손상된 신경 기능을 대체하는 접근법이다.

일본이 재생의료 치료제를 실제 의료 현장에서 적용하기 시작한 가운데, 국내 기업들도 일본 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메디포스트는 제대혈유래 동종중간엽 줄기세포치료제 '카티스템' 글로벌

임상을 바탕으로 상업화를 추진함으로써 해외 시장을 공략한다.

최근 카티스템 일본 임상 3상을 마무리해, 오는 2분기 해당 임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 품목허가 신청, 2027년 품목허가 취득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임상 3상에 돌입한다. 지난달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임상3상시험계획(IDN) 승인을 받았다.

카티스템은 2012년 국내에서는 품목

허가를 받은 세계최초 동종 제대혈 유래 줄기세포 치료제다. 염증 억제제는 물론 손상된 연골을 자연 상태의 연골로 재생시키는 근본적인 치료 효과를 갖췄다.

또, 안트로젠은 지난 9일 일본 후생노동성에서 지방유래 동종중간엽 줄기세포치료제 '알로스스템' 품목허가를 획득했다. 앞으로 3개월 내 보험 약가가 결정되며 오는 7월 제품 출시가 예상된다.

알로스스템 적응증은 희귀질환인 단순형 수포성 표피박리증(EBS), 이영양성 수포성 표피박리증(DEB), 접합부수포성 표피박리증(JEB) 등 3가지다. 항염증, 혈관 신생 촉진, 세포 보호, 상처 치유 등 다중 효과를 갖췄다.

알로스스템은 주 1회 피부 궤양의 면적에 따라 겹치지 않도록 덮어붙이는 제품으로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중간엽 줄기세포를 생체 적합성 지지대와 결합해 3D로 배양하는 기술이 집약됐다. 이번 결과는 안트로젠이 2015년 일본 이신제약에 알로스스템 기술수출을 진행한 후 11년만이다.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서는 과학적 연구개발과 상업적 고도화의 간극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19일 코엑스에서 열린 '메디컬 코리아 2026'에 참석한 오한진 아이디 병원 줄기세포센터장은 실효성 있는 데이터 축적과 연구지원 체계 확립을 강조했다. 그는 "국내에서는 우선 줄기세포 배양이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데이터 자체가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제약·바이오 및 의료 수준 전체를 끌어올리려면 각 연구개발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고 표준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오 원장은 "동물실험부터, 인체 임상, 장기 추적까지 병행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선 산·학·연 협력과 연구비 조성을 위한 펀드 마련이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줄기세포 기반 치료제와 재생의료의 희귀질환뿐 아니라 미용의료에 적용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도 선제적인 규격화를 강조했다. 오 원장은 "줄기세포 활용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며 다만 한국이 진정한 재생의료 선진 국가가 되려면 줄기세포 추출부터 공정까지 어느 병원을 가도 균일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 BTS 복귀에 K-뷰티 총출동... 글로벌 공략

옥외 광고 인증샷 등 팬들과 소통  
외국팬 지도 공유 등 접근성 개선

지난 21일 서울 광화문을 배경으로 세계적 팬덤을 보유하고 있는 방탄소년단(BTS)의 복귀 무대가 마무리된 가운데, 국내 뷰티 브랜드들은 K팝이 배출한 유망 아티스트의 서사에 K뷰티 정체성을 결합하며 글로벌 소비자를 적극 공략하고 있다.

22일 국내 뷰티 업계에 따르면, BTS 공연 시작에 앞서 K뷰티 브랜드 '티르티르'는 인스타그램에 '아름다운 뷔의 밤이예요'라는 게시물을 공유했다.

특히 BTS 멤버 뷔의 이니셜 V와 영어 단어 뷰티풀(Beautiful)을 합친 '뷰티풀(Veautiful)'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K팝과 K뷰티 팬들은 뷰티풀에 공감하며 공연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티르티르는 공연 중간에도 '함께이기에 눈부신 완성'이라는 표현을 추가하며 멤버 전체가 전역함으로써 완전체



진X라네즈 '라네진' /'X' BTS 전 팬 계정 @bloomingcherry

로 돌아온 BTS를 환영했다. 또 무대 조명을 배경으로 브랜드 대표 제품을 선보여 K뷰티가 공연의 일부인 듯한 장면을 연출했다.

티르티르는 지난해 11월 첫 브랜드 앰버서더를 뷔로 선정해 글로벌 전역에서 소비자 접점을 늘리고 있다. 이번 공연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K팝 팬들과 활발하게 소통하며 K뷰티 브랜드에 대

한 접근성을 개선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티르티르는 최근 들어 인스타그램에 서울 시내 티르티르 오프라인 매장 지도를 올리기도 했다. 대표 관광지인 명동을 비롯해 성수, 강남, 홍대 매장을 운영함은 물론 티르티르는 롯데·신세계 면세점에도 입점해 있다.

아모레퍼시픽의 뉴 뷰티 브랜드 '라네즈' 역시 방탄소년단(BTS) 만형 멤버 진과 함께 K뷰티와 K콘텐츠 위상을 높인다.

최근 인스타그램 등 각종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서울 광화문 광장에 위치한 KT 빌딩은 K뷰티 명소가 됐다. KT 빌딩에 설치된 옥외 광고 앞에서 찍은 인증샷이 급속도로 퍼지면서다.

해당 광고는 진이 라네즈 신제품을 소개하는 영상으로, 진의 압도적인 비주얼과 제품 인기에 힘입어 일명 '라네진'이라는 신조어가 탄생하기도 했다. K팝과 K뷰티의 협업이 극대화된 모습이다. /이청하 기자

## 빌리프, 美 '얼타뷰티' 입점... 유통망 확대

폭발적 수분감으로 냉각 효과 유지

LG생활건강은 지난달 미국 전역 '얼타뷰티'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몰에서 '빌리프' 신제품을 출시했다. 브랜드 대표 제품인 수분크림 제품군을 강화하고 북미 시장 공략에 속도를 더한다는 취지다.

이번에 추가 입점한 제품은 '아쿠아 밤 프로즌 크림'이다. 이 제품은 피부에 폭발적인 수분감을 전달하고 냉각 효과를 갖춰, 반복되는 열 자극에도 피부 온도 상승을 지연시킨다.

LG생활건강은 빌리프가 'K수분크림' 강자로 입지를 지속 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글로벌 화장품 편집업 세포라를 통해 미국에 진출한 후 지금까지 우수한 제품력을 기반으로 브랜드 인지도를 확보해 왔다.



빌리프 '아쿠아 밤 프로즌 크림' /LG생활건강

브랜드 대표 제품인 '더 트루크림 아쿠아 밤'은 이미 2020년 얼타뷰티를 시작으로 아마존 온라인몰, 틱톡샵 등으로 유통망을 늘렸다. 아쿠아 밤과 모이스춰라이징 밤의 토탈 글로벌 누적 판매량은 1600만 개를 돌파했다.

이와 함께 눈가 전용 수분 보충 제품인 '아쿠아 밤 아이 젤'은 아마존 히트 제품 목록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이청하 기자

## 애경 '멜라닌 샷', 속기미까지 완벽 커버

120시간 동안 커버 지속 효과 확인

애경산업은 메이크업 브랜드 에이지투웨니스(AGE20'S)에서 피부 노화 신호인 기미를 관리하는 '멜라닌 샷 기미 커버 쿠션'을 선보인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멜라 시크릿 컬러 파우더'를 적용해 피부의 속기미, 짙은 기미, 옅은 기미 등 피부에 나타나는 8색 기미 톤을 균일하게 보정하고 얼룩덜룩



에이지투웨니스 '멜라닌 샷 기미 커버 쿠션' (왼쪽)과 '멜라닌 샷 기미 앰플' /애경산업

한 피부 톤을 깨끗하게 정돈할 수 있다.

/이청하 기자

## 동아제약 수분 더한 검가드 출시

동아제약은 잇몸관리 전문 브랜드 검가드에서 '검가드 모이스처'를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검가드만의 특허 5종 복합물에 히알루론산을 더했다. 히알루론산은 수분을 끌어당기고 유지하는 특성을 지닌 성분으로 해당 제품은 건조한 구강 환경을 개선해 준다.

/이청하 기자

## 에이피알 "유럽 17개국 세포라서 만나요"

메디큐브, 450개 매장에서 순차 공개

에이피알은 유럽 지역 세포라에 스킨케어 브랜드 '메디큐브'가 입점한다고 22일 밝혔다.

세포라는 글로벌 뷰티 유통사이며, 메디큐브는 3월 중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17개 국가 약 450개 세포라 오프라인 매장에서 순차 공개된다. 각국 세포라 온라인 채널에서도 선보여질 예정이다.

에이피알은 세포라와 협업해 유럽 현지 소비자를 대상으로 메디큐브 인지도

제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브랜드 대표 제품인 '제로모공패드'를 비롯해 ▲PDRN 핑크 펩타이드 앰플 ▲콜라겐 나이트 랩핑 마스크 ▲콜라겐 젤크림 등을 통해 브랜드 경험 기회를 제공한다.

아울러 에이피알은 이번 유럽 판로 확장을 계기로 유럽 전역에서 브랜드 영향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 글로벌 뷰티 산업의 중심지로 꼽히는 만큼 세계적인 뷰티 시장에서 K뷰티 성장 기반을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이청하 기자

# 대한민국 가요 1세대 원조스타 리싸이틀

대전역 앞 아카데미하우스에서 "대한민국 1세대 원로가수 리싸이틀"이  
2026년 3월 31일(화요일)부터 매일 원로스타들의 공연으로 펼쳐집니다.



# 대한민국 1세대 원조스타 리싸이틀



고향 아줌마  
이정표 없는 거리  
고향이 좋아

매주 금요일  
김상진



대머리 총각  
코스모스 피어있는 길  
노란샤쓰 입은 사나이

매주 월요일  
김상희



나는 행복합니다  
이거야 정말  
장미빛 스카프

매주 화요일 윤항기



철없는 아내  
청춘  
낙엽따라 가버린 사랑

매주 목요일  
차도균



아버지의 대를 잇는 가수  
차승민



배호 가요제  
대상

매주 수요일  
이명주 / 이호



짐이된 사랑  
버팀목  
보고싶어요

매주 수요일  
이명주 / 이호



리싸이틀 사회  
탤런트 이경영

## 마술공연



여행사 및 단체관람  
문의 1544-3235





**부산항만공사, 신입직원 청렴·윤리 다짐 서약식**

부산항만공사(BPA)가 지난 20일 신입직원 10명을 대상으로 청렴·윤리 실천을 다짐하는 서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공정윤리를 철저히 지키며,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를 수행하고 지위나 권한을 남용하지 않는 등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부산항만공사



**HK이노엔, '직장인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HK이노엔은 지난 18일 경기 판교 소재 HK이노엔스퀘어 4층에서 성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와 '직장인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HK이노엔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신 건강 증진, 직장 내 스트레스 예방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HK이노엔



**한미약품그룹 '완전두유·케어미' 국제 우수 미각상**

한미약품그룹은 최근 벨기에 브뤼셀에 본사를 둔 국제식품품질평원이 주관한 '2026 국제 식품으로 품평회'에서 자사 식품 브랜드 '완전두유'와 '케어미'가 국제 우수 미각상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심사에서 '완전두유 김은콩 17곡 고칼슘'과 '완전두유 더진한 국산콩 무가당'은 각각 2스타를, '케어미 완전균형영양식'은 1스타를 획득했다. /한미약품그룹



**코웨이, 먹는샘물·정수기 품평회 7년연속 최고등급**

코웨이가 '2026년 제10회 먹는샘물·정수기 품평회'에서 '아이콘 정수기3'가 최고 등급인 '그랑골드' 등급을 획득했다. 이번 평가로 코웨이는 7년 연속 최고 등급을 기록한 데 이어 6년 연속 골드 등급 이상 달성 기업에 수여되는 다이아몬드상까지 수상했다. /코웨이



**하나금융, 학교 밖 청소년 자립·재도약 지원**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20일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교육방송공사와 4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심리·정신적 사유 등으로 학교를 떠난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자립과 재도약을 지원하는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청년 애 유스 브릿지(청년애 YOUTH BRIDGE)'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하나금융그룹

**올해 1분기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에 이상우·윤상용 대표**

〈아이엔아이〉 〈자랭〉

중기중앙회-중기부 선정 아이엔아이, 국가시설 보안망 구축 자랭, 인도네시아 등 시장 개척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2026년 1분기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으로 아이엔아이 이상우 대표와 자랭 윤상용 대표를 선정했다.

22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아이엔 아이는 보안 시스템 전문기업으로 지능형 보안설비와 CCTV 시스템에 대한 꾸준한 신제품 개발을 통해 안전한 도시환경과 국가중요시설 보안망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방법 시스템과 IP CCTV 관련 20



이상우 아이엔아이 대표



윤상용 자랭 대표

여 건의 특허와 인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침입탐지센서와 AI(인공지능)를 결합한 차세대 감시시스템 연구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특히 공장설비 확충을 통해 불량품 발생률을 1% 미만으로 낮추는 등 제조품목별 생산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제품생산을 위해 노력 중이다. 이상우 대표는 ISO 인증을 통해 환경과 안전보건 경영의 기반을 다지고, 전문 자격증 취득자에 대한 포상금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임직원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자랭은 프리미엄 커피와 티 전문기업으로 최고의 맛과 향을 위한 끊임 없는 연구개발 노력을 통해 폭넓은 제품 라인업과 차별화된 품질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윤상용 자랭 대표는 식품 안전과 품질 신뢰도가 글로벌 시장의 핵심임을 인식하고 국제표준 식품안전시스템 인증(FSSC)과 할랄 인증을 통해

기술력을 인정받으며 인도네시아 등에서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임직원 복지 강화를 위해 직무교육비와 건강검진비 제공뿐만 아니라 재택근무제 시행, 매달 셋째 주 금요일 조기퇴근 제도 등 생활 전반에 걸친 지원제도를 운영 중이다. 에너지 저감 계획 수립과 환경 인증서 발급으로 기업의 환경적 책임을 이행하고 사회복지관 및 재활재단에 지속적인 후원 활동을 펼치며 기업의 긍정적인 영향을 사회에 확산시키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metro

**LG전자, 플래그십 D5서 벚꽃 아트**

가로 20m, 세로 28m 규모 내달 30일까지 상영

LG전자가 봄철을 맞아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에 위치한 'LG전자 플래그십 D5' 외벽에 벚꽃을 주제로 한 미디어 파사드를 선보인다고 22일 밝혔다.

가로 20m, 세로 28m 규모의 미디어 파사드에는 초대형 벚꽃나무가 등장해 봄의 따스한 분위기를 전한다. 우주 공간에 위치한 행성에 거대한 벚꽃나무가 꽃을 피우고, 꽃잎이 흩날리며 우주를 뒤덮어 아름다운 장면을 연출한다.

벚꽃을 주제로 한 미디어 파사드는 오는 4월 30일까지 상영되며, 운영 시간은 매일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LG전자는 이번 미디어 파사드를 운영하며 ▲야간 라이팅 퍼포먼스 ▲최신 기술 체험존 등도 함께 진행해 방문객들을 맞이한다.

LG전자는 벚꽃 미디어 파사드를 통해 플래그십 스토어를 방문하는 고객들이 첨단 기술로 피워낸 벚꽃 아래에서 특별한 추억을 남길 수 있을



LG전자가 봄철을 맞아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에 위치한 'LG전자 플래그십 D5' 외벽에 벚꽃을 주제로 한 미디어 파사드를 선보였다. /LG전자

것으로 기대한다.

LG전자 플래그십 D5는 LG전자의 혁신 기술과 브랜드 비전을 집약한 대표 오프라인 매장이다. 'Dimension5(다섯 번째 차원)' 콘셉트 아래 1층 고객맞이 공간, 2~4층 제품 체험 공간, 5층 브랜드 경험 공간으로 구성된 증별로 차별화된 고객경험을 제공한다. 플래그십 D5는 최근 열린 글로벌 디자인 어워드 'iF 디자인 어워드 2026'에서 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유한양행, '공정거래 CP' 전사적 점검**

“투명·윤리 기업문화 구축 노력”

유한양행은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 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2025년 하반기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운영실적과 2026년 상반기 운영계획'을 22일 발표했다.

유한양행은 지난해 하반기 동안 총 다섯 차례의 '유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미팅'을 통해 준법경영 과제를 전사적으로 점검했다. 두 개 지점을 선정해 자율준수프로그램(CP) 관련 상담을 실시해 현장에서 준법 리스크를 직접 확인하기도 했다.

윤리 및 컴플라이언스 교육 역시 폭넓고 체계적으로 진행했다.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월별 화상 교육과 테스트, 영업 부서장 교육, 마케팅 및 특정 사업부 교육 등 직무 특성에 맞춰 고도화한 것이 핵심이다.

관계사와 공정 거래를 유지하는 코

프로모션 협력사 대상 교육도 이뤄졌다. CP뉴스레터 발간, 외부 전문 교육 참여, 준법 관련 사내 캠페인 자료 제작·배포, CP 가이드라인 해설집 발간 등을 통해 다양하게 소통했다.

특히 공정거래법과 사내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를 상시 관리했다. 총 31회의 현장 참관과 3회의 임상시험 심의로 리스크 관리를 한층 강화했다.

아울러 운영 효율성도 개선했다. 지출보고서 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학술대회 지원 결과보고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데이터 변경 시 사전 검토 및 승인 절차를 신설하는 등 시스템 완성도를 높였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준법경영은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신뢰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라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문화 구축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산재 사망 외국인 노동자, 국가가 배웅**

근로복지공단-인천국제공항공사 '산재 사망 이주노동자 예우사업'

산재재해로 숨진 외국인 노동자의 마지막 귀향길을 국가가 함께 배웅하는 첫 사례가 나왔다.

근로복지공단은 22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협력해 산재재해로 사망한 베트남 국적 이주노동자 故 뚜안 씨와 유족의 귀향을 지원하는 '산재 사망 이주노동자 예우사업'을 지난 20일 처음으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고인은 지난 3월 10일 경기도 이천의 자갈공장에서 작업 중 사고로 숨졌다. 이후 유족은 고인의 유해를 모국으로 모시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

근로복지공단은 유족이 낯선 타국에서 겪을 수 있는 심리적·행정적 부담을 덜기 위해 입국 순간부터 출국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했다. 산재보상 행정 절차와 유골 운송 절차를 안



20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국제공항 내 마련된 임시 추모 공간에서 고뚜안 씨 영정 앞에 헌화하며 깊은 애도를 표하고 있다.

내하는 한편, 출국 당일에는 공항 내 유족 전용 대기 공간과 임시 추모 공간을 마련해 고인을 조용히 기릴 수 있도록 했다. 공단 직원은 탑승 게이트까지 동행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귀향길을 함께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한국엔컴퍼니그룹, 임직원 맞춤형 건강관리**

식단·운동 등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한국엔컴퍼니그룹이 임직원의 건강 증진과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25일까지 그룹 내 자발적 신청을 받아 참가자를 모집하고, 최종 참가자 30명을 선정한 뒤 4월부터 약 6주간 진행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건강한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연계한 맞춤형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그룹은 이를 통해 임직원

이 스스로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일상에서 건강한 생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프로그램에는 개인별 유전적 특성과 관련한 49개 항목을 확인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와 결과 리포트 제공, 식사 이력과 생활 습관을 반영한 임상영양사의 1:1 맞춤 영양상담이 포함된다.

그룹은 프로그램 참여 과정에서 애플 기반 건강 미션과 주간 이벤트를 함께 운영하고, 우수 참여자에게 별도 보상을 제공해 건강관리 실천 동기를 높일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ysw@

**인사**

◆재정경제부 ◇서기관 승진 △감사관실 감사담당관실 박종석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실 황신현 △기획조정실 혁신정책담당관실 이금석 △혁신성장실 기업환경과 박지영 △혁신성장실 전략경제총괄과 유형세 △세제실 조세정책과 이원준 △세제실 법인세제과 정지은 △세제실 국제조세제도과 전종현

**부음**

▲손우영씨 별세, 손재일씨(한화에너지로 스페이스·한화시스템 대표이사) 부친상 =21일 아주대병원, 발인 23일 오전 9시. (031)219-6654  
▲강악균씨 별세, 강현석(의정부시 부시장)씨 부친상 =21일, 단국대학교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23일 오전 8시 30분. 041-550-7474.

# 처벌기준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 판단기준



김지혁 변호사의  
순에 잡히는 법

대법원이 최근 음주운전 사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과 운전 시점의 차이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

피고인이 주차장에서 약 30m 구간을 운전한 뒤 차로 변경 과정에서 오토바이와 충돌해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7%로 측정됐다. 원심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시점이 '상승기'일 가능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

대법원은 "비록 피고인의 음주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중

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더해 ▲운전 종료 후 불과 12분 만에 측정된 수치가 기준치를 초과한 점 ▲측정 당시 결과에 대해 이의제기하지 않은 점 ▲측정 당시 피고인의 언행과 보행 상태가 술에 취한 모습이었던 점 ▲사고 경위가 음주운전 정황과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 혈중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는 경우,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 기존 판례의 태도였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해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그간 일부 사건에서 위와 같은 '측정 시점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면서 사회적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반복되는 현실에서, 최근 대법원은 앞서 본 판결과 같이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과 운전 시점의 차이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는 경향이 있다.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에서 '측정 시점의 수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기존 일부 판례의 흐름을 제어하고, 실제 운전 당시 상태를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리를 정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은 위와 같은 대법원 입장에 따른 것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시점이 '상승기'에 해당하고 측정치가 처벌기준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더라도 운전 당시 취한 상태가 인정되면 처벌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던져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크게 높일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바른

## 상생보험, '선의'보단 '기준'



김지수첩  
김주형 (금융부)

상생보험은 반대하기 어려운 정책이다. 질병과 사고, 날씨 같은 생활위험 앞에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보장 공백을 메우겠다는 취지 자체를 문제 삼을 순 없다. 다만 좋은 뜻으로 시작한 제도일수록, 어디까지가 보험이고 어디서부터가 복지인지 경계선은 더 또렷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권은 지난 16일 6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상생보험 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5년간 2조원 규모의 보험업권 포용금융 계획도 내놴. 생명보험 기준 국민 전체 보험가입률은 84.0%지만 연소득 1200만원 이하 저소득층의 가입률은 24.5%에 그친다. 보장 사각지대를 메

우겠다는 방향은 분명 의미가 있다.

문제는 무상가입 자체가 아닌 무상가입이 반복될수록 보험의 성격이 흐려질 수 있다는 점이다. 보험은 본래 위험을 가격에 반영해 나누는 장치다. 반면 복지는 재정으로 사각지대를 메우는 장치다. 둘 다 필요하지만, 이점이 비슷해지는 순간 책임의 선도 함께 흐려진다.

이번 상생보험은 더 그렇다. 6개 지자체는 생명보험 1개와 손해보험 1개씩 총 20억원 규모의 상품을 제공할 계획인데, 18억원은 보험업권 상생기금, 2억원은 지자체가 부담한다. 생보 쪽은 신용생명보험이 공통으로 추진된다. 손보 쪽은 건설 현장 기후보험, 사이버케어보험 등 지역별 필요에 맞춘 상품이 검토된다. 구체적인 가입대상과 보장사항은 지자체와 보험업권이 함께 꾸리는 실무자업반에서 정하고, 가입 개시는 올해 3분기 목표다.

무료로 가입시키는 순간 정책은 쉬워 보인다. 하지만 왜 이 위험을 공공이 함께 떠안아야 하는지, 지원 대상은 어떻게 가르는지에 대한 설명이 빠지면 상생보험은 제도라기보다 이벤트에 가까워진다.

구조는 그만큼 더 차갑고 분명해야 한다. 가입자는 이것이 지속 가능한 보장인지, 한 시적 지원인지 헷갈리기 쉽고, 보험사는 상품과 사회공헌의 경계에서 역할이 모호해질 수 있다. 제도는 선해 보이는데 책임의 구조는 오히려 흐려질 수 있다는 뜻이다.

상생보험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미사여구가 아니다. 왜 이 위험에 공공이 개입해야 하는지, 누가 얼마 동안 비용을 부담하는지, 지원 종료 뒤 보장은 어떤 원칙으로 이어질 것인지를 먼저 밝혀야 한다. 상생보험은 선의로 출발할 수 있다. 오래 가려면, 선의보다 기준이 먼저 서야 한다.

/gh471@metrosoul.co.kr

###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3월 23일 (음 2월 5일) 표준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주위 사람들과 마찰이 있습니다. 60년생 남과의 시비에 드는 것을 피하세요. 72년생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하루를 보내세요. 84년생 일에 장애가 많아 초조합니다.



49년생 목욕이 물러나 지내는 것이 상책입니다. 61년생 로운 일을 추진하는 것은 좋습니다. 73년생 흥한 인간 관계가 있다면 속히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85년생 모든 일을 자제하세요.



50년생 어려움을 이겨낼 굳은 각오가 필요합니다. 62년생 공동의 이익에 봉사하세요. 74년생 성실한 사람들과 사이 좋게 지내세요. 86년생 여행은 금물 큰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51년생 주위에 사람들과 재물들이 모여 행복합니다. 63년생 바른 마음으로 인해 사람들이 모입니다. 75년생 이성인이 좋은 시기입니다. 87년생 재물이 모인다고 독점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52년생 귀인에게 자문을 구하면 성공합니다. 64년생 겸손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세요. 76년생 동남방이 길한 방향입니다. 88년생 고집을 버리고 더 나은 방식으로 고쳐보세요.



53년생 아랫사람에게 봉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65년생 고생한 모든 것이 좋은 운이 되어 들어옵니다. 77년생 마음을 비우고 행동하세요. 89년생 욕심을 내면 실패할 우려가 있습니다.



54년생 어려움이 많고 괴로움이 있습니다. 66년생 때를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78년생 고통을 견디어 내는 인내를 가지도록 하세요. 90년생 행복을 시기 질투하는 자가 있으니 주의하세요.



55년생 체념하지 말고 견디며 나아가 때입니다. 67년생 다툼을 주의하면 좋은 결과가 옵니다. 79년생 어렵겠지만 타인의 부탁을 거절하세요. 91년생 동료와의 기쁜 만남이 있습니다.



56년생 평탄한 길을 왔지만 곧 시련이 찾아옵니다. 68년생 남성이려면 이성과의 관계를 조심해야 합니다. 80년생 어긋남이 있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대법하세요. 92년생 조그마한 일에 충실하세요.



57년생 중도를 염두 해 두고 행동하세요. 69년생 타인의 잘못을 따뜻하게 감싸주세요. 81년생 성의를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세요. 93년생 지나치면 부족한 것만도 못하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58년생 남의 눈을 의식해서 노력한다면 성공하지 못합니다. 70년생 남보다 앞장서려 하지 마세요. 82년생 다른 사람의 뒤에서 묵묵히 따라주세요. 94년생 지나친 고집은 금물입니다.



59년생 때를 기다리며 힘을 길러야 합니다. 71년생 지금은 때를 기다리는 시기입니다. 83년생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 힘듭니다. 95년생 만족하고 바르게 행동한다면 모든 것이 길합니다.



## 김상회의四季 봄 절기

입춘 우수와 경칩도 어느새 저만치 갔다. 춘분과 곡우 그리고 청명을 맞으면 여름을 맞이한다. 계절을 느끼고 맛보는 데는 단연 절기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다. 절기와 절기 간격은 약 2주지만 세월의 오고 감을 느끼는 것은 절기만큼 은근한 것이 없다. 어쩔 그리도 절기마다 시절의 특성이 명료한지 말이다. 입춘이 어떤 누가 뭐래도 봄은 시작을 알린다. 햇살 자체가 엄동설한의 햇볕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수(雨水) 때는 누가 뭐래도 비가 내린다. 싹이 트도록 수분을 보내 주는 것이다. 원래 우수의 원천은 겨우내 얼었던 눈이 녹아 비와 물로 변한다 해서 우수(雨水)가 된 것이다. 물이어도 냉습한 물이 아니라 봄햇살이 담긴 새싹을 움트게 하는 따뜻함을 품은 물이다. 너무 차면 싹이 솟아나지 못하고 얼어 죽게 되니 말이다. 그래서 봄비는 정겹게 촉촉하다.

경칩은 말할 것도 없이 개구리가 잠에서 깨어나니 땅이 우수 때 내린 비로 인해 땅은 부드러워지고 개구리가 기지개를 켜는 것이다. 어디 개구리만 깨웠는가? 겨울잠을 자던 동면 생명들은 물론이거니와 나무들도 깨어나 단풍과의 나무들에서는 고로쇠물이 흘러내리니 삼라만상이 드디어 겨울의 냉기를 이겨내고 기지개를 펴며 깨어난다. 춘분부터는 해의 길이가 밤보다 낮이 길어지면서 아지랑이가 피어난다. 청명에는 화창한 기운이 만연하여 드디어 봄 농사를 준비하면서 곡우 때 내린 비는 농사비로써 못자리를 마련한다. 곡우 때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해 농사는 걱정스럽다. 그래서 "곡우에 가물면 땅이 석 자나 마른다."는 풍속서까지 생긴 것이다. 봄비가 내려 백곡(百穀) 즉 백 가지 곡식을 기를 지게 한다는 것이 곡우 아니던가. 농경 수채화를 그리려면 절기의 특징을 묘사만 해도 파노라마가 완성될 것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학원

##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3		9	2			7	8
4			6			5	9	
7				6			3	
	9		1	3		9	8	
	4	6			2			5
9	7			5	1		4	

###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이드의 월드레코드를 달성하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9	7	8	1	9	8	2	2	6
6	2	2	9	8	7	8	1	9
9	8	1	2	6	2	9	7	8
2	9	7	2	8	1	8	6	9
2	9	8	6	7	8	1	9	2
1	8	6	9	9	2	7	8	2
8	6	9	8	1	9	2	2	7
7	1	2	8	2	9	6	9	8
8	2	9	7	2	6	9	8	1

### metro 메트로미디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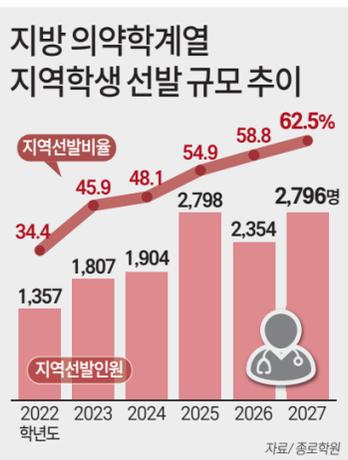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876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980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서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 지방 의치한약, 지역학생 선발 확대 기회 늘었지만 N수생 강세 '뚜렷'

2027학년도 지방권 의치한약 지역학생 2796명 선발... 5년새 2배 지방권 N수생 합격비율 높아질 것 수도권은 고3 수험생이 더 유리해



비율은 2022학년도 34.4%에서 ▲2023학년도 45.9% ▲2024학년도 48.1% ▲2025학년도 54.9% ▲2026학년도 58.8% ▲2027학년도 62.5%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방권 의치한약 선발 구조가 사실상 지역학생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는 의미다.

이 같은 변화는 지역 일반고의 기대 합격 인원 증가로도 이어진다. 지방권 일반고 기준 학교당 평균 합격 가능 인원은 2022학년도 1.4명에서 2027학년도 2.8명으로 2배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종로학원은 예상했다.

권역별로 보면 호남권의 확대 폭이

가장 두드러진다. 2027학년도 기준 일반고 학교당 평균 합격 가능 인원은 호남권이 4.0명으로 가장 높고 이어 ▲제주 2.8명 ▲충청 2.7명 ▲대구경북 2.7명 ▲강원 2.3명 ▲부울경 2.1명 순으로 전망됐다.

지방권에서는 학생 수 규모에 비해 지역학생 선발 인원이 크게 늘어난 반면, 내신 상위권 재학생 규모는 한정적 이어서, 수시에서도 N수생 유입이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수능 최저학력기준 충족 가능성에서는 고3보다 N수생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어 지방권 의약학 계열에서 N수생 합격 비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반면 수도권은 다른 양상이 예상된다. 수도권 내신 상위권 학생들은 서울과 경인권 대학에 집중 지원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학생부 경쟁력이 높은 고3 수험생이 N수생보다 유리한 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결국 2027학년도 의치한약 입시는 지방권에서는 N수생 강세, 수도권에서는 고3 상대 강세라는 이중구조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종로학원 분석이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방탄소년단(BTS)이 2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컴백을 기념해 'BTS 컴백 라이브 : 아리랑'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뉴스1

## 'BTS 컴백공연' 10만 인파 속 안전사고 0건

서울시, 체계적 인파관리·교통통제 경찰·소방 등 총 8200여명 인력 투입

서울 도심 한복판에 10만4000여명이 운집한 방탄소년단(BTS) 컴백 공연이 체계적인 인파 관리와 교통 통제 속에 안전사고 없이 끝났다. 서울시는 22일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린 이번 공연에 서울시·경찰·소방 등 관계기관과 주최 측을 포함해 총 8200여명의 인력이 투입됐으며, 행사 전 과정에서 중대 안전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공연이 확정된 직후인 지난달 4일부터 안전관리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 2차례, 행정1·2부시장 주재 5차례

등 총 7차례 점검회의를 열어 안전·교통·인파·편의·의료 분야 대응 계획을 점검했다. 행사 당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세종문화회관 4층에 관계기관 통합 현장본부(CP)를 설치해 서울시와 행정안전부, 중구·종로구, 경찰, 소방, 하이브가 합동으로 현장 상황을 관리했다.

도심 환경 정비도 병행됐다. 중구와 종로구, 주최측은 청소 인력 274명과 차량 53대를 투입해 행사장 주변 쓰레기를 수시로 수거했고, 공연 종료 후 3시간 안에 1차 정비를 마쳤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양일간 수거된 쓰레기는 약 40톤으로 추정됐다. 세종대로 차량 통행도 시설물 철거와 도로 정비를 거쳐 22일 새벽 6시 재개됐다. /이현진 기자

## 고양시 자족도시로... 광역 철도망 구축 속도

고양은평선·인천2호선 연장 점검

고양시가 광역 철도망 확충을 위한 핵심 사업 점검에 나서며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양시는 지난 20일 '인천2호선 고양 연장'과 '고양은평선 일산 연장' 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동환 시장은 이날 고양은평선 일산 연장선의 주요 거점인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앞 사거리와 인천2호선 연장 노선 중점 후보지인 중산체육공원을 차례로 방문해 현장을 직접 확인했다. 이번 점검은 시민 숙원사업인 광역철도망 구축의 현안을 파악하고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방문한 동국대 일산병원 앞 사거리는 고양은평선 일산 연장을 '제5차 수도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핵심 지점이다.

해당 지역은 지난해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대곡~고양시청~식사를 잇는 도시철도 노선으로 포함됐으나, 시는 이를 광역철도인 고양은평선과 직결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노선이 고양시청을 거쳐 새철역까지 연결될 경우 환승 없이 서울 도심 접근이 가능해져 시민들의 이동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 학원 특별점검... 신학기 사교육비 잡는다

서울교육청, 학원·교습소 720곳 대상 초과징수, 고액특강 등 불법인상 단속

서울시교육청이 신학기 사교육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학원과 교습소의 교습비 징수 실태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서울시교육청은 정부의 민생불가 특별관리 추진에 맞춰 서울 시내 학교교과 교습학원과 교습소 720곳을 대상으로 교습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점검은 11개 교육지원청 지도점검 인력 36명이 지난 달 24일 시작해 4

월 3일까지 진행한다.

중점 점검 대상은 교습비와 기타경비를 징수하는 학원과 교습소다. 점검 항목은 ▲교습비 초과징수 ▲미등록 단기 고액 특강 ▲기타경비 과다징수 ▲교습 시간 준수 여부 등 편법적인 교습비 인상 행위 전반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에도 교습비 특별점검을 실시해 712곳 가운데 183곳에서 228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관련 행정처분도 진행했다.

주요 위반 사례는 교습비 변경 미등록 74건, 교습비 등 표시·계시 위반 50

건, 강사 채용·해임 미통보 30건, 교습비 등 초과징수 8건 등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습비 관련 불법행위를 줄이기 위해 지난 2월 26일 교습비 초과징수 위반 과태료 부과 기준을 높이고, 교습비 월별 징수 원칙을 규정하는 방향의 학원법 개정안을 교육부에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20일에는 부교육감 주재로 11개 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장 회의를 열고 교습비 초과징수 등에 대한 단속과 처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현진 기자

## KT, 디지털인재장학생 '커넥팅데이' 열어

IT·AI분야 장학생 교류·네트워킹

KT는 20일 서울 광화문 KT빌딩에서 디지털인재장학생 프로그램 행사 '커넥팅데이'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올해 신규 선발된 장학생 47명과 기존 장학생들이 참여해 기수 간 교류와 네트워킹을 진행했다. 장학증서 수여와 팀 빌딩 프로그램 등을

통해 활동 시작을 알렸다.

KT 디지털인재장학생 프로그램은 IT·AI 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등록금 지원과 실무 경험을 제공하는 장학 사업이다. 1988년 시작 이후 약 1만2000여 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왔다.

KT는 올해부터 공공기관 및 지자체와 연계한 AI 기반 사회문제 해결 프로

젝트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장학생들은 AI 기술을 활용한 실무형 프로젝트에 참여해 지역사회 문제 해결 경험을 쌓게 된다.

지난해에는 7개 기관과 10개 프로젝트를 수행했으며, 종로구청과 협력해 교통 우회 정보를 제공하는 챗봇 서비스 개발 사례 등이 추진됐다.

KT는 공공 협력을 기반으로 AI 실무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장학생들의 현장 경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서현 기자 seoh@

### 메트로 한줄뉴스



▲군사·유전 이어 핵시설까지 겨냥...이란戰, 전면전 '폭발 직전'  
▲히말라야 빙하 2배 빨리 녹는다...ICIMOD "20억 명 생존 위협" /사진 뉴스1

▲프리드먼 "중동에서 단 번에 문제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은 위험"  
▲볼턴 전 보좌관 "이란 전쟁은 유럽의 전쟁, 유럽 지도자 소극 대응 실수"

▲미중 정상회담 "이란 분쟁 종식될 때까지 연기" 폴리티코 보도...백악관은 부인  
▲이스라엘 남부도시 아라드, 이란 미사일에 부상자 64명으로 늘어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32, 해질 18:46

3월 23일(월) 음력: 2월 5일

수도권 날씨: 4 ~ 19°C

운동 지수: [진행률 막대]

빨래 지수: [진행률 막대]

세차 지수: [진행률 막대]

외출 지수: [진행률 막대]

전국 날씨 지도: 연천 -1/19, 동두천 1/19, 가평 0/17, 파주 -1/18, 서울 4/19, 양평 -1/19, 인천 3/16, 수원 2/18, 용인 2/18, 평택 -1/19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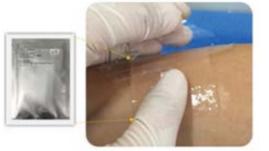


롯데칠성음료  
새로중앙박물관  
체험 마케팅 펼쳐  
니



Life

국내 제약바이오  
글로벌 재생의료  
시장선점 나서  
L2



# “억압 끊고 변화의 주체로… 모두가 해방되는 사회 꿈꾼다”



새벽을 여는 사람들

한국다양성연구소  
김지학 소장

한국 사회에서 ‘다양성’은 흔히 ‘서로 다른 사람들이 어우러져 사는 것’ 정도로 인식된다. 하지만 한국다양성연구소 김지학 소장의 관점은 더 날카롭다. 그는 다양성을 단순한 현상이 아닌, 누가 배제되고 포함되는지를 결정하는 ‘정상성’의 권력 구조를 해체하는 운동으로 정의한다.

22일 <메트로경제신문>이 한국다양성연구소의 김지학 소장과의 만남이다. 억압의 사슬을 끊고 모두가 해방되는 사회를 꿈꾸는 김 소장의 히스토리와 그가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민낯을 담았다.

김 소장이 다양성 운동에 투신하게 된 계기는 지극히 개인적인 ‘해방’의 경험에서 시작됐다. 학창 시절, 그는 늘 우울했고 삶의 목표가 없었다. 당시에는 그 이유가 단순히 자신이 ‘공부를 못하기 때문’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유학 시절 접한 다양성 훈련은 그의 세계관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았다.

“내가 느낀 불행은 개인의 무능력이나 아니라 학벌중심주의, 자본주의, 나이 차별이 결합된 사회적 억압이었습니다. 이 ‘정상성’에 의한 압박이 장애인, 여성, 성소수자 등 모든 소수자가 겪는 억압과 맞닿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미국 유학 당시 만난 멕시코 출신 여성 교수의 ‘편견의 심리학’ 수업은 결정적이었다. 선주민 남성으로 살며 한 번도 의심해 보지 않았던 인종과 성별의 특권이 타인에게는 폭력이 될 수 있음을 직면한 것이다. 이후 그는 NCCJ(The National Conference for Community and Justice)에서 다양성 훈련을 익히며, 이를 한국적 맥락에 맞게 변형해 한국다양성연구소를 설립했다.

한국다양성연구소는 어느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모두가 포함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다양성운동 단체다. 다양성운동은 차별과 억압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로 이해하고 사회변화를 만들어 가는 사람들을 세우는 교육·캠페인·연구와 같은 실천을 뜻한다.

한국다양성연구소의 핵심 사업인 ‘다양성 훈련’은 기존 인권 교육과는 궤를 달리한다. 주입식 강연이 아니라 참여자가 몸과 입을 움직이는 참여형 교육이다. 김 소장은 교육의 힘을 믿지만, 그 방법론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변화는 경험, 감정, 대화, 연결, 공감을 통해 일어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연구소는 ‘훈련(Training)’이라는 표현을 고집한다. 이는 사회의 단면을 간접 경험



▲한국다양성연구소에서 제공하고 있는 온라인다양성훈련 콘텐츠.  
◀김지학 한국다양성연구소 소장.

한국다양성연구소



유학시절 다양성 훈련으로 해방 경험  
한국적 맥락 맞춰 다양성연구소 설립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사회 위해 활동  
다양성훈련으로 사회 변화 이끌어  
참여형 교육 통해 정답 대신 경험 공유

혐오표현, 표현의 자유로 포장돼선 안돼  
차별 금하고 책임 묻는 사회적규범 필요  
일상에 질문 던져… 작은 변화 만들어야

하게 하는 ‘직면 활동’을 통해 참여자가 스스로 느끼게 하기 위함이다. 이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자신이 가진 수많은 사회적 정체성 속에서 ‘특권 그룹’과 ‘억압 그룹’에 속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한다.

김 소장은 “한국다양성연구소의 다양성 훈련의 가장 큰 특징은 ‘정답’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참여자들이 다른 사람의 경험을 들으며 자신의 세계를 재구성하도록 돕는 것이 교육의 본질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김 소장이 특히 우려하는 문제는 ‘경제 성장을 위해서 소수의 희생은 어쩔 수 없다’라는 말처럼 차별이 점점 더 ‘정당화’돼 가는 현상이다. 시험주의 수준에 불과한 능력주의에 기반한 공정담론이 차별과 억압을

어쩔 수 없는 일(그저 경쟁에 결과에 승복해야 하는 당연한 일)로 만들어 버리고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혐오표현이 ‘표현의 자유’와 같은 말들로 포장되고 공론장에서조차 용인되는 의견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점도 심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라며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뿐 아니라 법과 제도, 그리고 사회적 규범 차원에서 ‘무엇이 차별인지’ 명확히 하고 차별을 금하고 책임을 묻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거센 ‘역차별’ 논쟁에 대해 김 소장은 단호하다. “차별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차별이라 부를 수 없기에 표현 자체에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다. 역사적으로 소수자 지원 정책이 기득권 그룹보다 유리한 구조를 만든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특히 1020, 2030 남성들이 느끼는 역차별 인식은 ‘구조적 불안’과 ‘공정 담론’의 결합이라고 분석한다. 극심한 경쟁 사회에서 자신의 몫을 뺏길지 모른다는 공포가 인권을 ‘제로섬 게임’으로 인식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정치가 이 불안을 해결하는 대신 특정 집단을 희생양(Scapegoat) 삼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날 선 비판도 덧붙였다.

“여성을 향한 분노를 자신을 실제로 억압하는 가부장제 자본주의 구조로 돌려야 합니다. 자본의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정상성’의 기준이 남성 자신들조차 얼마나 옥죄고 있는지 깨닫는 것이 중요하지요.”

최근 기업들이 도입하는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에 대해서는 긍정과 우

려를 동시에 표했다. 이미지 관리나 성과 도구로만 소비될 경우, 구조적 변화 없는 ‘껍데기 다양성’에 머물 수 있다는 경고다. 진정한 DEI는 ‘나답게 살자’는 위로를 넘어, 나답게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조직 내 권력 구조를 파헤쳐야 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사회적 인식 변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김 소장은 상향식 접근(교육)과 하향식 접근(법·제도)의 병행을 주장했다. “포괄적 차별 금지법과 같이 무엇이 차별인지 알려줄 수 있고 차별당한 사람을 구제해 줄 수 있는 법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혐오 표현이 ‘표현의 자유’로 포장되는 현실을 비판하며, 차별에 책임을 묻는 명확한 사회적 규범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소장은 다양성 담론이 ‘나와 상관없는 소수자들의 이야기’로 치부되는 현실을 경계한다. 우리 모두는 늙고, 병들며, 언젠가 장애를 가질 수 있는 존재다. 결국 다양성은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라는 공존의 문제이자, ‘어떻게 자원을 나눌 것인가’라는 사회 정의의 문제다.

그의 목표는 명확하다. 더 많은 시민이 억압의 구조를 깨닫고 이를 변화시키는 주체로 성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민들에게 한국다양성연구소의 후원회원이 되어줄 것과 일상의 당연함엔 질문을 던지는 연습을 시작할 것을 권한다.

“일상에 작은 질문을 던지는 과정이 쌓일 때, 비로소 사회는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높이뛰기 이상혁, 세계실내육상선수권서 2m 26 넘어 공동 3위  
▲한국 상대할 멕시코 ‘간판’ 히메네스, EPL 페널티킥 성공률 ‘100%’  
/사진 뉴시스

▲손흥민 8경기 연속 침묵…Lafc는 개막 5연승 무산  
▲‘혼혈 태극전사’ 카스트로프, 홍명보호 합류 전 분데스리가 첫 멀티골

▲이강인, 홍명보호 합류 앞두고 부상으로 교체… 왼쪽 발목 밟혀  
▲이정후, 시범경기서 첫 홈런 ‘광’…김혜성 1안타 1타점

# 순풍 탄 대한민국의 기세로 . KT&G가 세계로 .

KT&G가 150여 개국의 수출 성과를 넘어  
멈추지 않는 대한민국의 저력을 세계에 알리겠습니다



KT&G와 함께 세계를 누빌 인재를 모집합니다



모집분야  
접수기간  
접수방법

R&D(제품개발 등), 생산직  
3월 16일(월) ~ 4월 6일(월)  
ktng.recruiter.co.kr

